

한국디자인DNA 심화연구

현대주거공간

심화연구자 김 태 현(명지전문대학)

CONTENTS

제1부 전통마을

- 1장 풍수지리의 영향
- 2장 전통마을을 형성하는 시설물
- 3장 씨족마을과 종가

제2부 전통주택

- 1장 전통주택의 공간구성
 - 1절 전통주택의 배치방식
 - 2절 전통주택의 채구성
- 2장 전통주택의 평면유형
- 3장 전통주택의 가구구성
- 4장 전통주택의 가구방식

제3부 전통 주거개념의 현대화

- 1장 현대적 활용을 위한 전통주거의 특성 분석
 - 1절 자연환경과의 조화
 - 2절 휴먼스케일
 - 3절 공간구성
 - 4절 환경 원론
 - 5절 가구방식과 재료, 문양
- 2장 전통 주거개념의 현대화를 위한 디자인 가이드

제4부 대표디자인

- 1장 추천 대표디자인
 - 1절 전통가옥 사례
 - 2절 전통미를 가미한 현대주거 사례

■

제 1부
전통마을

마을이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말 또는 마실이라고도 부르며,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사람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곳을 지칭하는 정주 단위이다. 마을은 인간의 공동생활을 지향하는 사회적 본성에 기인된 것으로써, 사회적 동물로서의 인간이 집단생활을 영위하려는 인간본래의 속성에 맞추어 창조된 것이고 이러한 인간의 속성은 가옥을 기본단위로 하여 전개되고 있다.

1장. 풍수지리의 영향

우리나라의 전통마을은 풍수지리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풍수지리는 원래 중국에서 개발되었으나, 고려시기에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우리나라에서 그 이론이 꽂피고 실천적으로 행해졌다. 그 주요한 이유로는 산이 국토의 75%로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마을을 형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문제 해결로 산과 강 등의 요소와 어떻게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질문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풍수지리사상은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 결실을 이루었을 것이다. 풍수지리는 음양오행설을 바탕으로 이룩된 일종의 환경계획이론으로써, 산, 물, 방위 등의 구성요소를 조합하여 국면을 이룬다. 풍수지리는 크게 사람이 사는 집의 원리를 다루는 양택론과 죽은 자의 집인 무덤의 원리를 다루는 음택론으로 나눈다. 양택론에서는 주택의 부지선정, 대문위치, 방 배치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원리로 질서를 부여하고 있다.

전통마을은 산을 등지고 남향하여 앞에 경작지와 명당수로서의 생활하천이 흐르는 배산임수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형식은 생기 있고 안정적인 주거지를 만들기 위해 마을을 에워싸고 있다. 둘러싸인 형국은 정기가 서려있는 공간으로, 자연과 신의 대립을 인정하지 않고, 일체의 자연은 곧 신이며 신은 곧 일체의 자연이라고 고려하는 범신론적 사고와 연관되어 있다.

이상적인 삶의 터를 자리잡기 위한 것에 관한 옛 문헌으로는 이종환의 “택리지”, 홍만선의 “산림경제”,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등이 있으며 그들의 주장하는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종환은 “택리지의 복거총론”에서 마을의 지리가 좋아야하고, 주산(主山)은 우뚝 솟고 모양이 수려, 단정, 청명하여야하며, 조산(祖山)은 맑고 깨끗하게 보여야 하며, 수구(水口)가 닫힌 듯하고 들판이 넓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시내와 간수(澗水)가 모여 드는 곳과 유유히 흘러들어오는 조수, 토질은 흙과 모래가 굳고 조밀하여 우물이나 샘물이 맑고 차가운 곳을 권장하였고, 흘러드는 물은 산맥의 좌향과 음양이치에 합치되는 지를 살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주변 자연환경으로는 아름다운 산과 물이 있어야 하고, 10리 밖 반나절 쯤

되는 거리에 아름다운 승경치를 경영하여 생각날 때마다 유숙하여 즐긴다면 대대로 이어갈 만하다고 권장하면서, 생리와 인심이 좋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홍만선은 “산림경제”에서 치생(생활의 방도)에는 지리를 가려 물과 땅이 어우러져 트인 곳이어야 하고,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있어야하며, 널찍하면서도 긴속하여 재리가 생산되고 모일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양거에는 집터가 평坦하고 명당이 넓고 앞이 트여야하며, 흙은 기름지고 물맛이 감미로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주택의 자리잡기로는 풍기의 장취와 앞뒤로의 안온함과 집이 오래 보존되어야 함을 고려하여 북쪽을 뒤로하여 앉아 남쪽으로 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안산은 뾰족하거나 예쁘장하게 등글어야 좋으며, 집의 좌와 본산의 위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주택의 동쪽에 유수가 있어서 바다까지 도달할 수 있으면 좋고, 물의 방향은 양국에서는 양의 방향으로 음국에서는 음의 방향으로 흘러나가 섞이지 않아야 함을 주장하였다.

원편에 물이 있는 것을 청룡, 오른편에 큰 길이 있는 것을 백호, 앞에 못이 있는 것을 주작, 뒤에 언덕이 있는 것을 현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긴 땅이 가장 좋은 삶의 터라고 주장하였다.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곳, 뒤가 높고 앞이 낮은 곳, 남북이 길고 동서가 좁은 집터를 권장하면서, 지형은 청룡의 머리가 닿는 곳에 수족이 열린 모습으로 보이는 곳이 양거의 적지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나쁜 터로는 서쪽이 높고 중앙이 낮은 분지형 대지와 동쪽과 북쪽의 대로를 피하라고 주장하였다.

마을을 형성하는 길은 똑바로 들어오는 것은 좋지 않으며, 굴리고 곡전하여 집터가 넓고 윤택하며 건조하고 양기가 흐르는 곳과 후고전저의 지형조건, 서쪽과 남쪽의 대로를 권장하였다.

서유구는 “임원경제지의 상택지”에서 상택(相宅)으로 배산(配山)과 장풍(藏風)하는 환경조건을 제시하였다. 지리는 수로와 육로가 모두 잘 통하고, 산을 등지고 호수를 내려다 볼 수 있어야 하며, 지형이 열려 있어 너르고, 땅이 비옥하고 샘물이 맛있어야 길하다고 하였다. 산맥의 흐름에는 팔을 활짝 편 듯 한 곳을 권장하였다. 산수경관은 정신을 즐겁게 하고 성정을 활달하게 만들어 준다고 주장하였다. 계산(溪山)과 강산의 정취가 서려 있고, 소쇄(瀟灑)하고 아담한 정취가 있으며, 신령스런 기운이 모여 있는 곳을 좋은 주거지로 주장하였다. 홍수의 위험이 있는 큰 강 부근이나 강이 합류하는 곳은 피하고,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문이나 길을 내지 말라고 주장하였다.

평坦한 땅과 뒤가 높고 앞이 낮은 땅,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은 땅 등을 권장하였다. 좌청룡의 흐르는 물, 우백호의 큰길, 남주작의 연못, 북현무의

구릉지가 주거지로 적지라고 주장하였다. 남북이 길고 동서방향이 좁은 집터, 해와 달, 별빛이 찬란하게 땅을 비추며, 비와 바람, 추위와 더위가 적절하게 교차되는 곳, 북쪽에 자리 잡고 남쪽에 면하여 추위와 온난함이 적절하며, 초목이 무성하게 자라는 집터를 권장하였다.

또한 나쁜 터로는 큰 산이 가까이 있어서 산사태의 위험이 있는 곳, 흙이 없는 석산이나 절벽으로 기가 끊어진 단산(斷山), 초목이 없는 동산 등을 피할 것을 주장하였다. 초목이 자라지 않는 곳이나 습지, 사찰이나 도관(道觀)이 자리할 곳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집을 향하여 들어오는 길은 곡선이어야 좋고, 삼문이 마주보지 않도록 하며, 수로나 산의 맥이 직선으로 들어오는 것은 좋지 않고, 대로 앞에 교차로나 정자형 도로가 있거나 집의 서면이 도로로 에워싸인 곳은 흉하다고 주장하였다. 비옥한 땅이 넓게 펼쳐지고 지리적 조건이 좋은 거처를 정하여, 10리에서 30리 정도 떨어진 곳에 명산과 아름다운 물가가 입지하는 곳을 권장하였다.

2장. 마을을 형성하는 시설물

마을을 형성하는 시설물은 크게 생활시설, 신앙의례시설, 교육시설, 휴식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생활시설로는 사적인 살립집 이외에 공적인 우물, 빨래터, 공동마당, 방아 등이 있다. 우물은 식수를 얻는 장소일뿐더러 아낙네들의 대화의 장이기 때문에 마을 진입어귀나 높은 골짜기에 위치한다. 빨래터는 빨래와 물의 수량에 따라 마을 내의 냇물과 마을 밖 개울까지 넓게 퍼져 있다. 중심 공동마을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 즐길 수 있거나 경작을 다듬는 공간으로 활용되며 기능적인 접근성을 쉽게 하기위하여 주도로와 인접해 있다. 방아는 농경생활과 관련하여 사람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공간이다. 디딜방아나 연자방아가 있는 곳은 주도로와 인접해 있어 접근성을 좋게 하고 넓은 마당을 두고 있다.

신앙의례시설로는 마을 입구에 장승과 솟대가 있고, 당과 당목, 효자비, 열녀비, 선정비 등이 마을 어귀에 있으며, 배후지에는 사당과 묘자리가 위치한다.

교육시설로는 서당이 마을의 중심에 서원과 향교는 주로 마을과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휴식시설로는 정자, 마을 숲, 뒷동산, 연못, 수로 등이 있다. 정자는 마을 공동의 정자와 개인의 정자로 구분된다. 마을 공동정자는 마을 입구나 넓은 마당에 위치하여 주민들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개

인정자는 조망이나 사색을 하기위한 공간으로 산기슭이나 집 후원에 위치한다. 마을 숲은 마을 입구 경작지에 가까이 있어 휴식공간으로 활용된다.¹⁾

3장. 씨족마을과 종가

씨족마을이란 같은 성으로 이루어진 마을로써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이 조선시대의 가장 대표되는 씨족마을 또는 동족마을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농촌지역에 수많은 씨족마을이 있었고, 이러한 씨족마을은 조선시대 마을의 가장 특징적인 형태로 알려져 있다. 씨족마을은 주로 농촌의 양반계층에 의해 16세기경부터 전개되었다. 양반들은 형성된 재산을 장자에게 독점적으로 물려 줌으로써 같은 씨족간의 결속을 다졌고, 집안에서 제사 지내는 것이 중요시되면서 제사 지낼 의무와 권리가 있는 장자에게 많은 재산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씨족마을은 더욱 변성하게 되었다.

씨족마을이 자리 잡은 위치는 넓은 경작지를 낀 산 아래 자락이 많다. 씨족마을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구심적 역할은 종가이다. 종가는 안으로는 마을 사람들이 한 핏줄임을 확인시켜주는 구심점이며, 밖으로는 씨족을 대표하는 집이 된다. 따라서 종가는 마을 내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그 형태나 규모 또한 다른 집들과 구분되는 특징을 갖는다. 종가가 위치하는 곳은 마을이 경사진 산기슭이라면 대체적으로 마을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아 마을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이 되고, 평탄한 곳이라면 마을 중심에 자리 잡게 된다. 종가는 집의 규모면에서도 한 단계 큰 규모를 갖으면서 마을 내의 위치에서 볼 때 그 위계질서가 흔들리지 않고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며, 마을로 진입하는 가장 중심이 되는 길은 항상 종가로 이어지게 된다.²⁾

마을에서 종가의 위치는 크게 마을 후면, 마을 중앙, 마을 전면 등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마을 후면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주산에서 종가, 주거지, 경작지, 안산의 배치형태로 이루어지며, 대표적인 사례로는 양동마을, 닭실마을, 옻골마을 등을 들 수 있다. 마을 중앙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주산, 주거지, 그 다음으로 종가, 주거지, 안산의 배치형태로 이루어지며, 대표적인 사례로는 하회마을과 외암마을 등을 들 수 있다. 마을 전면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주산, 주거지, 그 다음으로 종가, 경작지의 배치형태로 이루어져 마을 전면 득, 경작지에서 가깝게 위치한다. 이런 종가의 형성은 임진왜란 이후 입향 되어 조선후기에 성장한 마을에서 주로 일어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호지마을과 해저마을 등을 들 수 있다.³⁾

1) 대한주택공사, 공동주택 한옥디자인, 2009, 32쪽

2) 대한건축사협회편, 민가건축2, 보성각, 2005, 29쪽

3) 대한주택공사, 공동주택 한옥디자인, 2009, 31쪽

■

제 2부
전통주택

우리나라의 살림집은 주위에서 얻기 쉬운 재료, 흙과 돌 그리고 나무와 짚 등으로 세워지는 농촌의 살림집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들은 비록 권위건축만큼 짜임이 정밀하지는 못하지만 그 나름대로 우리나라 자연환경에는 가장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건축형태를 가지고 있다. 권위건축인 궁궐이나 사찰에 비하여 그 재력과 기술 등이 열등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대를 이은 실생활을 통하여 얻은 지식과 경험에 의한 창달과 개선으로 발전되어온 것이기 때문에 가장 진실한 생활철학이 담긴 건축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제주도의 민가는 그 지역의 기후특징인 강한 풍우에도 잘 견디도록 바람막이 돌담벽, 역새풀을 并자형으로 엮어 이은 지붕 등 자연에 잘 조화시킨 것이다.

살림집은 이렇게 민간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거주하는 민족과 풍습, 지리적 환경 등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 건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장. 전통주택의 공간구성

조선시대의 상류주택은 넓은 대지의 경계를 담장이나 행랑으로 에워싸고, 그 내부에 안채, 사랑채, 행랑채, 사당, 별당 등을 배치하였다. 채와 채 사이는 담장이나 행랑으로 막기 때문에 각각의 채는 독립적인 마당을 지닌 공간으로 구성되며, 각 공간으로 드나들기 위한 중대문이나 일각대문이 담장 사이에 위치한다. 따라서 상류주택의 경우 큰 집은 열두마당집 또는 열두대문집 등으로 호칭되기도 한다.

1절 전통주택의 배치방식

1. 개방형

개방형 주거는 살림채와 부속채의 분리가 뚜렷한 다동형 건물구성이라는 특징 이외에, 이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의 건축적 특성을 가지게 된다. 부속공간의 분리에서 오는 살림채와 부속채의 분리가 뚜렷한 다동형 건물구성이라는 특징 이외에, 이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의 건축적 특성을 가지게 된다. 부속공간의 분리에서 오는 살림채 규모의 축소는 물론이거니와 다면적인 개구부를 위하여 공간이 한 겹으로 배열되는 ‘홑집형 평면구성’이 발달한다. 홑집형 평면구성은 구조경간이 좁기 때문에 삼량가구법이 일반화되고 이에 따라 지붕형태도 우진각지붕이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2. 폐쇄형

□자형 주택은 가운데 안마당을 중심으로 집이 □자로 구성되고 앞쪽에 대문

과 바깥마당을 구성한 집을 말한다. 이러한 주택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산재하는 대농형식으로 주거로서 경북지방에서는 뜰집의 구조와 융화되어 나타나고 조선말 정부의 통제기능이 약화되어 화적떼들이 성행할 때 많이 만들어 졌으며, 특히 중부서해안지방에서는 이런 폐쇄적인 형태를 가진 평면이 光式 年間에 크게 유행했다. 口자형 주택은 그 공간 성격상 안채를 구성하는 안채 공간과 사랑채를 구성하는 사랑공간, 행랑채, 대문간채, 또는 부속사로 이루어지는 부속공간과 선조의 위패를 모셔두고 제사를 드리는 사당이나 별묘, 가묘 등으로 이루어지는 주택내의 의식공간으로 그 공간성이 분류된다.

2절 전통주택의 채구성

1. 안채

주부의 주생활영역을 흔히 ‘안채’라고 부르는데, 이는 주생활의 중심으로서의 의미와 내부로서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주부는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주거의 중심이며, 내부에 위치하여 외부로부터 격리, 보호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안채가 여러 겹의 중문을 통해 출입할 수 있을 만큼 은밀하게 은폐되어 있고, 영역의 배치가 폐쇄적인 모습을 갖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안채는 안방, 웃방, 대청, 건넌방, 부엌 등으로 기본구성이 된다. 그 외에도 곁방, 작은대청, 아랫방, 찬간, 고방 등이 첨가된다.

안방은 안주인의 일상거실이며 취침공간이다. 웃방에는 의결이나 장, 농을 윗목에 배치되어 있다. 대청은 안방이나 웃방, 건넌방 등에 출입할 때 이용되는 통로의 기능과 여름철의 거실의 역할을 담당하며 상부에는 시렁을 만들어



01. 안채-윤증고택

소쿠리와 같은 저장도구 등을 놓기도 한다.

부엌은 취사공간으로, 안방 쪽으로 부뚜막을 만들어 여러 개의 솔을 건다. 부뚜막의 반대편에는 보통 찬간을 두어 그릇과 반찬을 담는다. 안방의 옆으로 폭이 좁은 곁방을 두기도 하는데 이곳에 의결이와 같은 가구를 두기도 하고 저녁에 사용하는 요강을 비치하기도 한다.

안채의 평면이 ㄱ자로 꺽인 곳에 건넌방을 둔다.

안채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5량가구로 되어있으며, 납도리집으로 홀처마 팔작지붕으로 구성된다.⁴⁾



02. 안체-성위제가옥



03. 안체-김선조가옥

2. 사랑채

사랑채는 바깥주인이 주로 거처하면서 외부의 손님들을 접대하는 생활 장소이다. 농촌 민가와 같은 작은 규모의 주택에서는 사랑채를 두지 않거나 두더라도 접객의 기능이나 교육 기능보다 밤이나 겨울철의 농경이나 가내공업 등 의 작업공간이나 남자들이 모여 한담을 즐기는 마을휴식처로서의 의미가 큰 공간이 된다.

종류 민가에는 안채에 연결되어 대문에 가까운 부분에 설치된다. 사랑채가 독립된 건물은 부농이나 중·상류계급의 주택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주택에서는 안채와 분리된 대문과 외부와의 동선을 직접 연결시켜주는 권위적인 건물이 된다. 안채와 이어지는 사랑채인 경우에는 안채의 한 끝에서 행랑채에 면하여 짓는데, 시각적으로 분리되도록 고려한다. 사랑채의 앞에는 사랑마당이 따르는데 사랑마당과 안마당은 반드시 담이나 행랑으로 서로 구분한다. 이것은 주택 내에서 집안사람들의 생활과 외래객들의 출입을 철저히 분리하고자 한 것으로써 대가족제도와 유교사상으로 인하여 큰사랑, 작은사랑, 익랑채, 별당채 등으로 가족 간의 지위와 남녀생활권의 구별을 엄격히 하기 때문이다.

사랑채는 보통 사랑방과 침방, 뒷마루, 대청마루, 누마루 등으로 구성된다. 상류주택에서는 사랑방 옆에 특별히 넓은 대청마루가 마련되어 있어 주택의 대

4) 대한건축사협회편, 민가건축2, 보성각, 2005, 35쪽

외적인 의식을 치르는 장소가 된다. 사랑방은 주인의 일상거실로써 아랫목에서 달력을 뒤로하여 보료, 안석, 장침, 사방침 등을 배치하여 주인의 자리를 만들고, 보료 앞에 연상과 서안, 담뱃대꼬지, 담배함, 재떨이 등을 늘어놓은 개판을 두며, 이의 앞쪽 양옆으로 방석들을 늘어놓아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남쪽의 창 아래에는 문갑을 쌍으로 늘어놓고, 윗목 양쪽에는 사방탁자를 놓는다. 벽에는 서간고비를 걸어둔다.

사랑방과 바로 접해있는 침방에도 문갑을 두기도 하며, 가께수리를 두어 귀중한 물품을 보관한다. 저녁에 필요한 일부자리는 벽장에 넣어둔다. 여름철에는 살평상을 두어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침방이 따로 없을 경우에는 사랑방이 낮에는 거실의 용도로 저녁에는 침방의 용도로 사용된다. 한편 장성한 아들이 있는 경우에는 사랑채의 평면을 그자형으로 만들어, 꺾이는 부분에 사랑대청을 두고 양쪽에 사랑방을 둔다. 사랑채의 전면에 위치한 방은 주인이 사용하는 큰 사랑, 사랑채의 측면에 위치한 방은 장성한 아들이 사용하는 작은 사랑이라 호칭 한다.

사랑대청은 사랑방이나 누마루를 연결하는 통로의 기능도 지니면서, 여름철에는 주인이 사용하는 거실의 기능을 담당한다. 윗목 두 구석에는 사방탁자를 놓고 여름철에는 뜯자리나 살평상을 둔다.

누마루는 사랑대청과 붙어 있으며 여름철에 주인의 접객 장소로 쓰이는데 누마루의 유무에 따라 상류 주택과 중류 주택을 구분하게 된다. 성격으로 보아서는 안채와 행랑채의 중간이 되며, 실제로 안채와 행랑채의 중간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행랑채에서 사랑채와 안채 사이에는 따로따로 중문을 마련하여 서로 출입을 구분한다.



04. 사랑채-윤증고택



05. 사랑채-선교장



06. 사랑채-성위제가옥

한편 사랑채가 안채와 연결되어 건축된 경우에는 보통 사랑방 뒤에 안마당과 접한 작은 마루가 있는데, 손님이 왔을 경우 주인이 이 마루에 나와 안채에 접대상을 준비시킨다. 그러나 마루를 둘만한 평면이 아닐 때는 안마당에 면한 창호를 이용하기도 한다.

사랑채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5량구조이다. 남도리나 굴도리집으로 홀처마나 겹처마의 팔작지붕으로 구성된다.⁵⁾

사랑채는 정실(淨室)이 있어 가묘(家廟)가 없는 집에서 신주를 모실 수 있도록 구조되기도 한다. 이는 조선시대에서만 장려되었던 공간이어서 고려시대 이전에는 없었다.

3. 행랑채

행랑은 대문간에 붙어 있는 방을 뜻하므로 행랑채는 행랑방이 시설된 집채라고 할 수 있다. 보통 대문을 중심으로 마구간, 하인들이 기거하는 방, 광등으로 되어 있고 주택의 바깥 부분에 해당되는 주거공간이므로 주택의 경계선에 따라 세워지는 경우가 많다.

행랑채는 주택은 물론 조선시대의 궁전이나 관아건축에도 일반적으로 지어졌으며, 주로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이 기거하거나 각종 창고로 이용되었다. 행랑채의 구조는 3량집으로 된 목조가구식으로 가장 간단한 것이며, 한 방의 크기는 1칸 또는 2칸 정도가 보통이다. 내부에 면하는 벽체는 주로 개구부 사이를 흙벽으로 하며 때로는 벽체를 따로 두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서민의 주택에는 본격적인 행랑채는 없고, 서울의 경우에는 대문의 양 옆에 1칸 또는 2칸의 행랑방을 둔다. 이 방은 주로 광으로 이용되었던 것이지만, 근래에는 대부분 온돌로 개조하여 방으로 사용하고 있다.

중류 주택에서는 가도에 연하여 행랑방이 출행랑을 이루어 안채와 외부의 경계를 이루는데, 그 규모는 크지 않다.

상류주택의 행랑채는 대문간행랑채와 중문간행랑채로 구분된다. 대문간행랑

5) 대한건축사협회편, 민가건축2, 보성각, 2005, 35쪽

채는 바깥행랑채로써 주택의 가장 바깥 전면에 늘어선 행랑채로써 이곳에 솟을대문이 있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대문간행랑채는 솟을대문칸과 마루, 방, 아궁이부엌칸, 마구간, 혀간, 고간 등으로 구성된다.

중문간행랑채는 대문간행랑채 다음으로 안쪽에 있는 행랑으로 안채로 드나드는 중대문이 있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안채로 드나드는 중대문은 보통 마주한 곳에 내외벽을 두고, 내외벽 앞을 돌아 그 옆의 개방된 칸으로 안마당에 들어서게 된다. 이 중문간행랑채의 한쪽에는 사랑채로 출입할 수 있는 중문이 있다.⁶⁾

중문간행랑채에는 중대문 이외에도 방, 마루, 아궁이부엌, 고간 등이 있는데, 안식구들이 이곳의 방과 마루를 쓸 때도 있으며, 이곳을 아래채라고도 한다.

상류주택의 행랑채는 10여 칸에서 수십 칸에 이르는 경우도 많다. 비원연경당(演慶堂)의 행랑채는 바깥행랑채와 중문간행랑채를 합하여 전부 59칸 반이나 되는데, 그 중 문이 4칸, 온돌방이 21칸, 마루방이 19칸 반, 흙바닥이 15칸을 차지한다.

온돌방은 행랑채에 있는 사람들이 기거하는 곳이며, 마루방은 광으로 이용되거나 행랑 사람들이 기거하였으며, 흙바닥 중에는 마구간·가마고 외에 측간도 들어 있다. 지방의 상류주택 중 비교적 전립연대가 오랜 안동하회(河回)의 충효당(忠孝堂)은 행랑채가 一자로 되었다.

솟을대문의 양 옆으로 11칸의 행랑방이 있는데, 그 중 온돌방이 3칸이고 나머지는 마구간과 외양간 및 광으로 되어 있다. 구례의 운조루(雲鳥樓)도 비교적 행랑채의 규모가 큰 주택인데 현재 남아 있는 것은 一자형의 줄행랑 17칸이다. 상류주택의 행랑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솟을대문이다.

솟을대문은 주택의 정문이며, 대문 옆 담의 지붕 높이보다 대문의 지붕 높이를 한단 올린 것을 말한다. 지붕은 맞배지붕이 된다. 대문은 보통 1칸으로 되어 두 째의 문을 안으로 열게 되어 있다. 일설에는 사대부들이 가마에 앉은 채 대문을 출입하므로 가마가 문을 지나가기 위하여 지붕높이를 높인 것이 솟을대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솟을대문의 발생은 향리에서 사대부들이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대문을 권위 있게 꾸미려 한 데서 찾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솟을대문의 양 옆으로는 가마를 보관하는 가마고와 마구간이 있고, 그 옆으로 하인들의 살림방이 여러 칸 있다. 그 나머지 방들은 대개 광으로 쓰이게 되는데, 곡식을 저장하거나 집안의 일용잡기들을 보관한다.

경주 최식씨 가옥의 행랑채에는 곡식을 저장하는 ‘천석곡간’이라는 방이 있다. 간혹 행랑채에 부엌이 들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행랑채의 부엌은 본격적인

6) 대한건축사협회편, 민가건축2, 보성각, 2005, 36쪽

부엌이 아니고 방에 불을 때는 아궁이를 이용하여 솔을 걸어 물을 끓이는 반 아궁이의 성격과 반 부엌의 성격을 띠는 부엌이다.



07. 행랑채-양동향단

4. 사당채

사당은 사대부가를 비롯한 일반 민가에서 조상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지내는 집을 말하며, 집 울안의 뒤쪽 아늑한 곳에 세운다. 담장으로 사방을 둘러막고 일각문이나 삼문을 세우고, 그 안쪽으로 정면3칸 측면 1칸반의 크기나, 정면1칸 측면 1칸반의 크기로 건립한다.

사당의 다른 명칭으로 가묘(家廟)라고도 하며, 왕실의 것은 종묘(宗廟)라 한다. 고례(古禮)에서는 사당을 종묘 또는 예묘(禮廟)라고 하였는데, 주자의 《가례 家禮》에서는 사당이라고 칭하여 이것이 통용되었으며 왕실의 종묘와 구별하게 되었다. 중국에서는 고대로부터 사당이 있었는데, 왕가(王家)의 전례(典禮)로 시작하여 일반 가정에서 행하여야 할 절차까지 마련되어왔다.

우리 나라에 사당 제도가 유입되기는 삼국시대부터라고 하겠으나, 일반화하기는 고려 말이며 조선 중기 이후에 와서 더욱 철저하게 실행된 것이다.

《가례》에서는 사대부집에서 사당에 4대의 신주를 일렬로 열향(列享)하여 모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사당은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지어야 하니 그 위치는 정침(正寢) 동쪽으로 하고, 사당이 있는 집은 종자(宗子)가 대대로 지켜야 하며, 부득이한 때를 제외하고는 헐지 않는다. 사당은 3칸에 5가(架)로 하되 안에는 전(算)을 깔거나 나무판자로 마루를 깔고 그 위에 자리를 편다. 그리고 중간 도리 밑에 문을 만들어 중문(中門)이라 하고 칸마다 4문짝을 달아 분합문(分闔門)이라 한다.

분합문 밖에 3급(級)인 두 섬돌을 놓는데, 동쪽을 조계(祚階)라 하고 서쪽을 서계(西階)라 부른다. 사당의 향배(向背)는 앞을 남, 뒤를 북으로 보고, 만약 가세가 빈한하여 집터가 좁으면 다만 1칸만 세워도 된다.

사당 섬돌 아래에 터가 넓고 좁음에 따라 지붕을 올려 덮고 여러 집안 사람이内外(內外)로 갈라 차례대로 서 있게 하는데, 이를 서립옥(序立屋)이라 한다.

서립옥의 동쪽에 종(縱)으로 서향하여 3칸의 주고(廚庫)를 짓되 북쪽에 있는 1칸에 유서(遺書)와 의물(衣物)을 보관하고, 가운데 1칸에 제기(祭器)를 보관하며 나머지 남쪽 1칸을 신주(神廚)로 삼아 제수(祭需)를 만들고 제사지낼 때 음식을 따뜻하게 덥히는 곳으로 사용한다.

만약 터가 좁아서 사당을 1칸만 짓게 되면 주고를 세울 수 없으니 사당 안 동쪽과 서쪽의 벽에 큰 궤(櫃)를 하나씩 만들어놓고 서쪽에 있는 궤에는 유서와 의물을, 동쪽에 있는 궤에는 제기를 각각 보관한다.



그리고 사당과 주고를 둘러 네모난 담을 쌓고 앞쪽에 외문(外門)을 낸다. 외문은 사당의 남쪽에 있기 때문에 사당의 중문과 마주보게 되며, 외문의 동쪽과 서쪽은 바로 담에 이어지게 한다.



08. 사당채-윤증고택
09. 사당채-선교장

10. 사당채-성위제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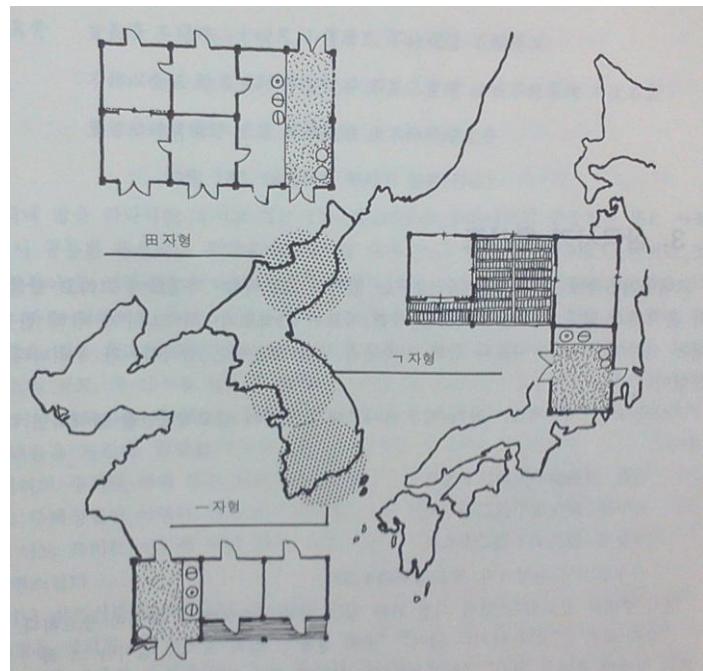
2장. 전통주택의 평면유형

주거의 평면은 기후와 신분제도적, 경제적, 그리고 풍속적인 이유 등에 기인하며, 한반도가 비교적 다양한 기후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각 지방마다 서로 다른 평면 구성을 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사회 신분제도가 명확하였기 때문에 서민주택, 중류주택, 상류주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서민주택의 평면은 대체로 기후와 관련된 자

연적 요소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로 지역적으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중류주택과 상류주택의 평면은 지역적인 특성보다는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은 형태로 구성된다.

서민주택의 평면 유형은 지방별로 크게 一자형, ㄱ자형, 田자형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상류주택의 평면유형은 □자형이 대표적이다.



11. 민가평면유형

1. 一자형

하나의 공간으로 이루어진 초기의 단실주거에서 기능 구분되어 취사공간과 휴식을 위한 공간인 부엌과 방으로 형성된 것이다. 일자형은 도리방향으로 길게 증축되어 3~4칸의 규모와 3량 구조가 일반적이다. 부엌과 방, 마루, 건넌 방 등이 一자로 연결되므로 모든 공간들이 남쪽으로 개구부를 만들 수 있으므로 쾌적하고 개방적이다.

一자형은 우리나라 전통주거의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형식으로 중부 이남인 전라도와 경상도에 주로 분포하므로 남부형이라고도 명칭한다. 이들 지역에는 기후가 비교적 따뜻하므로 텃마루를 다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부속사를 둘 경우에는 본체의 좌우편이나 건너편 쪽으로 배치하여 마당공간을 형성 시킨다.

2. ㄱ자형

ㄱ자형의 기본은 一자형에서 발전된 형식으로써, 도리방향으로 3~4칸의 본채에 직각으로 앞으로 연결된 공간배치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ㄱ자집은 부

엌, 안방, 옷방으로 일렬배치하고 옷방에서 직각방향으로 대청을 두고 건넌방을 배치하는 중부지방에 널리 분포하는 방식과 건넌방, 대청, 안방을 일렬배치하고 안방에서 직각방향으로 부엌을 배치하는 서울 중심의 방식으로 나누어진다.⁷⁾ 한편 중부형은 각 방들이 남향을 하고 있어 일조와 일사에 유리하나 방의 독립성은 불리하고, 서울형은 일조나 일사에는 불리하나 각 방의 독립성이 유리하다.

3. 田자형

기후가 추운 지방인 함경북도와 평안도에 있는 주택에서 많이 보이는 형식으로 표피면적을 줄여 추위를 피하기 위한 방식이어서 북부형이라 명칭하기도 한다. 부엌의 부뚜막을 길게하여 취사와 거주기능을 가지는 정주간을 만들고 방에서 방으로 직접 연결되어 칸막이 벽을 사이에 둠으로써 田자의 평면형식을 하고 있다. 불이 가까이 있는 정주간은 물론이고 각 방들도 부엌으로부터 연결되는 온돌구조로 되어 있으며, 대청공간은 없다.⁸⁾

벽체도 두껍게 되어 있고 창을 적게 하여 보온에 중점을 두었기에 일조와 일사에 불리하여 어둡고 통풍이 원만하지 못하고 각 방의 독립성이 어렵다.

4. ㅁ자형

ㅁ자집은 주건물의 평면이 ㅁ자 모양을 이룸으로서 건물의 안쪽에 안마당을 가지고 있고, 각 평면 상의 공간과 지붕이 모두 연결된 집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ㅁ자집은 뜰집 보다 건물의 규모가 크고 평면과 구조에 있어서 뜰집과 다르며 다른 점들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적 측면에서 뜰집은 안대청이 대문간의 레벨보다 높고 주고가 훨씬 높아 대문간과 그 좌우의 지붕 용마루선 보다 안대청의 용마루선이 그만큼 높다. 그러나 ㅁ자집에서는 거의 같은 레벨의 용마루 선이 연결되어 진다.

둘째, 가구방식에서 뜰집은 3량 위주로 되어 있는 반면, ㅁ자집은 5량 위주로 되어 있다.

셋째, 평면에서 뜰집은 안대청이 중심으로 되어 있고 wm 좌우에 안방과 건너방이 위치하는데 비해, ㅁ자집에서는 뜰집의 안대청 위치에 안방 2칸과 대청 2칸 정도가 결합되어 위치하고 뜰집의 안방 위치에는 부엌이 위치하고 있다.

ㅁ자집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산재하는 대농형식의 주거로써 경북지방에서는 뜰집의 구조와 융화되어 나타나다. 조선말 정부의 통제 기능이 약화되어 화적떼들이 성행할 때 많이 만들어졌다.⁹⁾ 일반적으로 대농

7) 황용운 편저, 삶과 문화가 담긴 주거건축, 예일미디어, 2009, 42쪽

8) 박언곤, 한국건축사강론, 문운당, 1986, 228쪽

9) 김홍식, 경기도 한옥조사 보고서, 경기도, 1978, 21쪽

형식의 집은 모두 □자형인데 다만 튼□자형이나 □자집이나 하는 것은 집의 연결 여부만이 다를 뿐이다. 사회가 안정된 태백산맥 서쪽의 중부평야지대에서는 ㄱ자와 ㄴ자가 결합된 형태로 이루어진 튼□자집이 유행하고, 제주도를 포함한 서해안 지방에서는 一자형으로만 구성된 튼□자집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사회가 안정되지 않은 산간지방에서는 대체로 □자집이 유행한다.¹⁰⁾

평면의 구성은 우선 본동의 대문을 들어서면 뜰집의 대청에 해당하는 부분에 안방 2칸과 안대청 2칸이 있으며, 안대청의 우측으로 수장공간인 반간의 도장과 1칸의 상방이 있다. 상방에서 다시 ㄱ자로 꺽이어서 1칸 크기의 부엌과 중방이 놓이는데, 이 부엌은 상방 쪽으로 부뚜막을 설치하고 있으며 그 상부는 안뜰에서 쓰는 디락을 만들고 있다. 중방 아래쪽으로 각각 1칸의 중마루와 사랑마루가 있고 사랑마루에서 안방 쪽으로 ㄱ자로 꺽이어서 2칸의 사랑방이 있다. 이들 사랑방과 사랑마루 앞에는 반 칸의 전퇴가 놓여져 있다. 사랑방 좌측으로 각각 1칸의 대문간, 외양간, 모방(행랑방)이 놓이며, 외양간과 대문간 사이에는 여물통을 놓아 경계를 표시하고 외양간의 상부에는 통나무로 시렁을 만들어 간단한 농기구를 얹어 놓을 수 있다. 모방에서 다시 안방 쪽으로 꺽어져 3칸의 수장공간인 고방이 있고, 2칸과 1칸의 크기로 막아서 사용하며 마루는 우물마루로 되어 있다. 고방 위쪽에는 안방 쪽으로 부뚜막이 있는 2칸 반의 큼 부엌이 마련되어 있다.¹¹⁾

뜰집은 □자집의 일종으로 태백산맥 살림집의 유형으로서 경북 안동지방에서 중규모 이상 상류주거의 살림채로 흔히 사용되고 있다. 그 분포는 영양, 봉화, 청송, 영주 지방과 함께 태백산맥 동쪽에 속하는 영덕지방에도 분포되어 있다. 이들은 해안지역보다도 태백산맥에 면한 고장에 밀집되어 있다.¹²⁾

뜰집의 규모는 대청 2탄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면 내림과 가름을 각각 4칸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규모가 큰 경우(주로 종가집)는 대청 3칸으로써 내림 5칸과 가름 6칸으로 한다.

평면의 구성은 우선 본동에 붙은 대문을 들어서면 안마당 건너 맞은편에 약간 높은 레벨로 안대청이 내림 1칸에서 3칸, 가름 1칸에서 2칸 정도로 되어 있고, 그 좌측에는 건너방(상방)이 있으며 우측에는 수장공간인 도장과 ㄱ자로 꺽어지는 부분으로 안방이 붙어 있다. 도장은 내림 1칸과 가름 반 칸으로 되어 있고 안방의 가름은 1칸 반으로 되어 있으며 도장의 출입은 주로 안방에서 한다. 안방 아래에 가름 2칸으로 된 큰 부 이 있으며 우측 마당으로 나갈 수 있게 중문이 나 있다. 큰 부엌의 상부에는 안방에서 사용하는 디락이 있다. 큰 부엌 아래에 가름 1칸의 아랫방(행랑방)이 있고 아랫방에서 건너방

10) 김홍식, 민속대관, 주생활편, 고대민족문화원, 1980, 650-651쪽

11) 김태현, 조선후기 □자형주택의 구조와 부재비례에 관한 연구, 흥익대학교대학원, 1983, 5-7쪽

12) 신영훈, 한국의 살림집, 열화당, 1983, 14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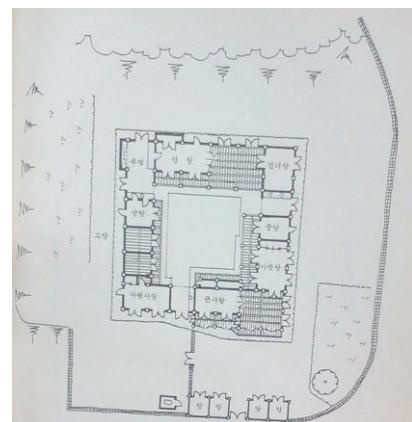
쪽으로 꺽어져 대문간 사이에 마구간이 있고 마구간의 상부에는 작은 농기구를 넣을 수 있는 다크이 설치되어 있다. 대문간 옆으로 안방과 대각선상에 사랑방이 있고, 사랑방 위로 서재 역할을 하는 책방이 있으며, 책방 위쪽으로 바닥이 우물마루로 된 고방이 있다. 고방과 건너방 사이에는 작은 부엌이 설치되는데 건너방 쪽으로 부뚜막이 있으며, 그 상부는 안마당에서 사용하는 다크이 있다.

ㅁ자형의 공간으로 둘러쌓인 내부에는 자연적으로 작은 ㅁ자형의 뜰이 생기는데 이곳에는 식물을 심지 않으면 건물의 깊은 처마에 의해 좁은 하늘의 윤곽을 보이며 비교적 어둡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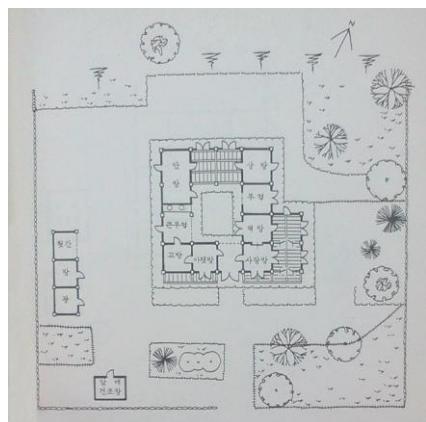
뜰집을 채의 개념으로 풀어보면 안채, 사랑채, 행랑채, 부속사 등의 4~5가지의 기능이 조합되어 있으며 맨 안측에 안채, 대문간 측에 사랑채와 행랑채 및 부속사, 중간 연결부에 부엌겸 중문간과 부속사 등의 순서이다.

뜰집의 유형은 안대청이 있는 쪽과 대문간이 있는 사랑방 쪽의 조합방식에 따라 분류하면 크게 완전형, 조합형, 분리형으로 나눌 수 있다.

완전형은 본동의 평면이 일정한 칸의 길이의 조합으로 완전한 ㅁ자 모양을 취한 것이고, 조합형은 본동이 일정치 않은 칸의 길이에 의한 2~3개 동의 독립된 건물로 조합되고 외관상으로는 폐쇄된 ㅁ자형을 취한 것이다. 즉, 안채에 해당되는 동과 사랑채에 해당하는 동이 칸 길이에 있어 상호 어긋나고 구조적으로도 독립된 건물이나 전체 공간의 기능상 폐쇄된 ㅁ자 형태이다.



12. ㅁ자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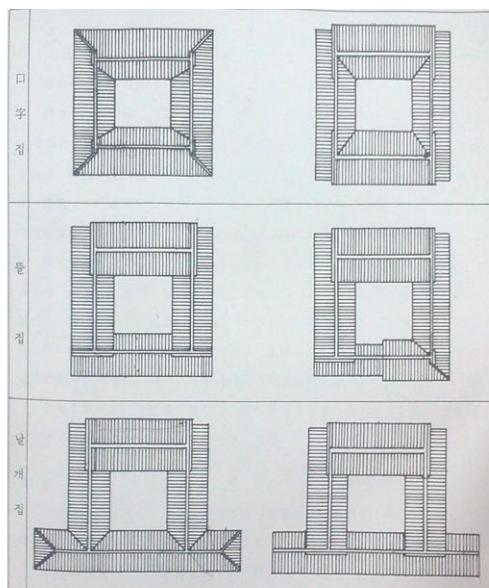


13. 뜰집

분리형은 지형에 따라 ㅁ자형을 분리시켜 각동이 완전 분리되어 상호 대응하게 배치된 형식으로써 상호간에 칸 길이의 공통성은 없으나, 공간 개념상으로는 ㅁ자 형태와 비슷하다. 이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폐쇄성의 산곡간의 집과 개방성의 평야의 집이 절충된 형태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규정지를 만한 배치¹³⁾로서 형태는 다른 형보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로 ㄷ자 모양의 본

13) 신영훈, 한국의 살림집, 열화당, 1983, 150쪽

동 전면에 대문간이 있는 사랑채의 一자형을 덧붙인 것이 많으며, 반대로 一자 모양의 본동에 사랑채의 丁자형을 덧붙인 경우도 있다.



14. 종류별 지붕형태

ㅁ자집에서는 분리형을 틀ㅁ자집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예는 중부지방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보인다.

풀집의 한 형태로서 날개집이라고도 있는데 이는 집의 평면이 ㅁ자 외곽으로 방이나 마루 또는 누마루가 돌출되어 있는 집의 형태를 말한다. 보통 전면에 돌출부가 생기는데 이는 풀집의 공간 확대로 볼 수 있다.¹⁴⁾

3장. 전통주택의 가구구성

1. 기단

기단은 집을 지면으로부터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야 지면의 습기를 피할 수 있고 밝은 빛을 집안에 가득히 받아들일 수 있다. 기단의 높이는 또한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며, 신분간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도 한다. 기단은 한국건축에서 잘 발달되어 있으며 그 높이가 중국이나 일본보다 높다. 기단 높이는 건물의 규모와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대략 2자에서 5자 정도의 높이로 한다.

가. 토축기단

토축기단은 일반 살림집에서 많이 사용한다. 진흙을 다져 쌓아 올려 만드는 기단인데 견고성을 위하여 돌을 섞어 쌓거나 목심을 박아 쌓기도 하고, 때로는 기와편을 섞어 쌓기도 한다. 토축기단은 너무 매끄럽고 진흙이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굴림백토를 만들어 쓰기도 하는데, 굴림백토는 둥글게

14) 김태현, 조선후기 ㅁ자형주택의 구조와 부재비례에 관한 연구, 흥익대학교대학원, 1983, 16-21쪽

뭉친 진흙을 황사(석비례)에 굴려 만드는 것으로 벽체나 기와를 이을 때에도 사용된다. 이렇게 살림집에 주로 사용되는 토축기단을 죽답이라고도 한다. 물론 살림집이라고 해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양반집에서는 잘 가공된 화강석이나 장대석 기단을 사용한다.

나. 자연석기단

크고 작은 자연석을 서로 이를 맞춰가면서 쌓은 기단이다. 매우 폭넓은 건물의 기단에 사용되었다. 작은 규모의 살림집에서는 자연석을 쌓되 크고 작은 돌을 정밀하게 이를 맞추어 쌓기보다는 비슷한 크기의 돌을 약간의 진흙을 섞어 가며 거칠게 쌓는 것이 일반적이고, 사찰과 같이 규모가 있는 건물에서는 자연석기단이라 할지라도 비교적 큰 돌을 그레이를 떠서 서로 이를 맞춰가면서 쌓는 것이 보편적이다. 많은 살림집과 사찰건물에서 자연석 기단을 볼 수 있는데 안동 양진당, 의성 김씨종택 등이 있다. 또 사찰 건물에서는 봉정사 대웅전, 쌍계사 대웅전, 전등사 대웅전, 금산사 미륵전, 화암사 극락전,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환성사 대웅전, 위봉사 보광명전, 내소사 대웅보전 등이 좋은 예이다.

다. 장대석기단

도로경계석과 같이 생긴 일정한 길이로 가공된 장대석을 층층이 쌓아 만든 기단을 말한다. 조선시대 가장 널리 사용된 기단으로 지금도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다. 장대석기단의 맨 위층 모서리 장대석은 귀가 벌어지는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통돌을 ‘ㄱ’자 형상으로 만들어 덮는데 이를 귀틀석(耳機石)이라고 한다. 그리고 장대석을 쌓을 때는 밑층 장대석 보다 위층 장대석을 약간 씩 들여쌓는데 이를 퇴물림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삼국시대이래의 성곽, 석총을 비롯한 각종 석축에서 이 기법을 볼 수 있다.

라. 가구식

매우 고급스런 기단으로 주로 고려이전의 중요건물에서 볼 수 있다. 대부분 화강석을 가공하여 만들었는데 장대석기단과 틀린 점은 목조가구를 짜듯이 구성한다는 것이다. 가구식 기단의 일반적인 구성은 먼저 지면에 지대석(地臺石)을 놓고 그 위에 건물의 기둥을 세우듯이 기둥석을 세운다. 이때 기단의 모서리에 세워지는 기둥석을 우주석(隅柱石)이라 하고 중간의 기둥석을 팽주석(撐柱石)이라 한다.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얇은 판석으로 막는데 이를 면석(面石)이라고 한다. 다시 기둥석 위에는 수평으로 돌을 얹어 완성하는데 가장 위에 덮은 이 돌을 갑석(甲石)이라고 한다. 가구식 기단은 살림집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그 실례는 통일신라시대의 것으로 불국사 대웅전과 극락전

의 기단이 있다. 고려시대의 것으로는 부석사 무량수전과 통도사 대웅전, 수덕사 대웅전의 기단 등이 있다.



15. 자연석 기단-성위제 가옥

2. 계단

계단은 기단에 오르기 위한 시설물로 보통 기단에 어울리는 형태와 재료로 만들어진다. 토축기단과 자연석기단에서는 자연석을 이용해 계단을 만들고, 장대석기단과 가구식기단에서는 장대석을 쌓아올려 계단을 만든다. 대부분의 경우 장대석 계단에서는 계단 양쪽 측면 마구리가 보기 흉하므로 계단면석으로 마감을 한다. 이때 딛고 올라가는 발판의 역할을 하는 장대석을 디딤돌이라고 하고 양쪽 측면을 막는 판석을 계단면석이라고 한다. 계단 면석을 받치고 있는 지면에 깔리는 돌을 지대석이라 하며, 계단면석 위에 경사지게 놓이는 돌을 소맷돌이라고 한다. 때로는 지대석과 계단면석, 소맷돌이 한부재인 통돌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통칭하여 소맷돌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또 소맷돌 전면의 양쪽에는 짧은 기둥석이 놓이기도 하는데 이를 법수석이라고 한다. 때로 법수석은 종묘 정전의 계단처럼 기둥이 아닌 구름조각이 되기도 하고 송광사 일주문 앞의 계단처럼 사자조각이 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소맷돌이 날카롭게 지면에 박히는 것을 극히 싫어했던 것 같다. 그래서 지대석을 설치하고 전면을 조각 장식하거나 법수석을 세우는 조치가 뒤따랐던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소맷돌이 지면과 만나 예각의 날카로움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을 볼 때 조형감각의 차이를 읽어낼 수 있다. 계단 소맷돌과 면석에서는 조각 장식이 다양하고 화려하다. 태극문양과 구름문양이 어우러지기도

하고 사자와 연꽃과 각종 기하학적인 문양이 조각되기도 한다.

3. 초석

초석은 주초라고도 하며 기둥 밑에 놓여 기둥을 통해 내려오는 하중을 땅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원시시대 움집의 경우에는 초석 없이 기둥을 바로 땅에 박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상건물에서는 초석이 사용되었다. 초석은 지상에 노출되기 때문에 민족적 정서에 따라 많은 조각과 장식이 들어가기도 한다. 초석은 가공여부에 따라 가공석 초석과 자연석 초석으로 나눌 수 있다.

가. 원형/방형 초석

초석에서 지반에 닿는 부분을 초반이라고 하고 초반에서 도드라져 올라와 방석처럼 생긴 받침이 있는 부분을 주좌라고 한다. 초반은 주좌의 형태와 관계 없이 대부분 방형이고 많은 부분이 땅에 묻힌다. 주좌는 보통 기둥 단면형태와 같다. 즉 원기둥이면 주좌도 원형이고, 방형기둥이면 주좌도 방형이다. 그러므로 초석의 형태별 분류는 주좌의 형태에 따라 분류한다.

나. 사다리형 초석

사다리형 초석은 18세기 이후 살림집에 많이 사용했다. 주좌없이 초반의 형태가 위쪽은 약간 좁고 밑동은 약간 넓은 형태의 사다리꼴 초석으로 평면은 원형과 방형이 있다. 이 중에서 방형이 많이 쓰였으며 보통 초석의 높이는 1자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살림집에서는 가공한 초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조선후기 양반가에서 이러한 초석이 쓰이기 시작했다.

다. 자연석 초석

자연석 초석은 덤벙주초라고도 한다. 자연석을 그대로 초석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이때 강돌은 사용하지 않고 반드시 산돌을 이용한다. 덤벙주초는 기둥과 만나는 면에 굴곡이 있으므로 기둥 밑면을 초석면에 맞도록 그레이질 한다. 덤벙주초는 주로 백성들의 살림집에서 사용하지만 사찰의 대웅전과 같은 큰 정전건물에서도 사용한 예를 흔하게 볼 수 있다. 덤벙주초는 때에 따라서 기둥이 높이는 주좌면만을 살짝 가공하기도 한다.

라. 장주초석

장주초석은 지면으로부터 습기를 피하기 위하여 초석의 높이가 비교적 높은 것을 말한다. 주로 중층누각건물의 1층에 장주초석을 쓰는 경우가 많다. 누각

건물은 쳐마를 아무리 많이 내더라도 건물자체가 높기 때문에 1층 기둥에는 비가 뿌리기 마련이다. 그래서 1층 기둥이 많이 썩기 때문에 장주초석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조선시대 살림집의 사랑채 누마루 초석을 장주초석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경복궁 경회루와 같이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아예 돌기둥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높이가 비슷해 돌기둥과 장주초석의 구분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이라도 목조기둥이 있으면 장주초석으로 보아야 한다.



16. 사다리형 초석-윤증고택 안채



17. 자연석 초석-성위제 기옥

4. 기둥

기둥은 지붕의 하중을 지면에 전달하는 수직 구조 부재이다. 대들보와 아울러 목조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부재이다. 움집과 같은 원시 구조물에서는 아직 벽체와 지붕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보와 기둥 등의 기능이 분화되어 있지 않아 기둥을 생략한 구조물도 있다. 점차로 건물의 규모가 커지고 구조 법이 발달하면서 부재의 구조적 역할도 분할되어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같은 기능의 기둥이라도 시각적 안정감이나 미적인 장식기능 등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모양의 기둥이 탄생하게 되었다.

가. 배흘림

배흘림기둥은 기둥의 직경이 밑에서 1/3지점에서 가장 크고 위와 아래로 갈 수록 작아지는 기둥을 말한다. 서양 그리스, 로마의 신전건물에서도 이러한 기둥을 사용했는데 이를 엔타시스Entasis라고 한다. 주로 큰 건물이나 정전건물에서 사용했다. 고구려시대 고분벽화의 건축도에서 배흘림기둥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배흘림은 고대서부터 사용되었으며 조선시대 말까지 이 기법은 이어진다. 현존하는 건물 중에서 고려시대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 강릉객사문 등과 조선시대 대부분의 건물에서 나타나는데 이중에서 강릉객사문이 배흘림 정도가 가장 강하다. 또 맞배집이 팔작집보다 배흘

림의 정도가 강하게 나타난다. 통일신라기의 목조건물은 남아있는 것은 없지만 쌍봉사 철감 선사부도(858년) 등의 석조물에서 배흘림 정도가 강한 기둥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로 보아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는 배흘림이 강했지만 조선시대 다포 팔작지붕이 유행하면서 그 정도가 약해졌다고 할 수 있다.

나. 민흘림

민흘림기둥은 기둥머리 보다 기둥 하부 직경을 크게 만든 것을 말한다. 역시 안정감을 주기 방법으로 민흘림기둥도 배흘림기둥과 같이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배흘림이 주로 원기둥에 사용되었다면 민흘림은 방형기둥에 사용되었다. 통일신라시대 경북 의성 탑리 5층석탑의 일층탑신에 민흘림기둥이 사용되었으며 조선시대 개암사 대웅전, 해인사 응진전, 화엄사 각황전, 서울 남대문, 쌍봉사 대웅전, 수원 장안문, 율곡사 대웅전 등에서 수 없이 볼 수 있다.

다. 직립주

직립주는 기둥머리와 기둥 밑등의 직경이 같은 기둥을 말한다. 직립주는 주로 착시현상을 일으키지 않는 벽체가 형성되는 기둥이나 궁궐과 사찰의 부속채, 살림집 등 크지 않은 건물에서 많이 사용했다.

5. 공포

공포는 크게 포작계와 비포작계로 나눌 수 있다. 포작계 공포는 출목이 있을 경우에 형성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포집이라고도 한다. 포작계 공포는 포의 숫자에 따라 3포집, 5포집, 7포집, 9포집 등으로 나누고 포의 배열과 살미의 모양에 따라 다포형식, 주심포형식, 익공형식, 하양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비포작계 공포는 출목이 없는 무출목 익공계공포와 민도리집으로 나눌 수 있다.

가. 공포의 형식

1) 주심포

주심포 형식이란 포의 배치방식에 따른 분류법으로 기둥 위에만 포가 놓인 공포형식을 말한다. 주심포 형식 중에서 살미의 모양이 특별히 익공의 형태로 된 것을 익공형식으로 분류한다. 주심포형식은 대부분 1출목인 3포집이다. 주로 조선 초기 이전에 많이 사용되었으며 지붕의 형태는 맞배지붕이 많고, 천장은 특별히 만들지 않아 서까래가 노출되어 보이는 연등천장 건물이 대부분

이다.

2) 다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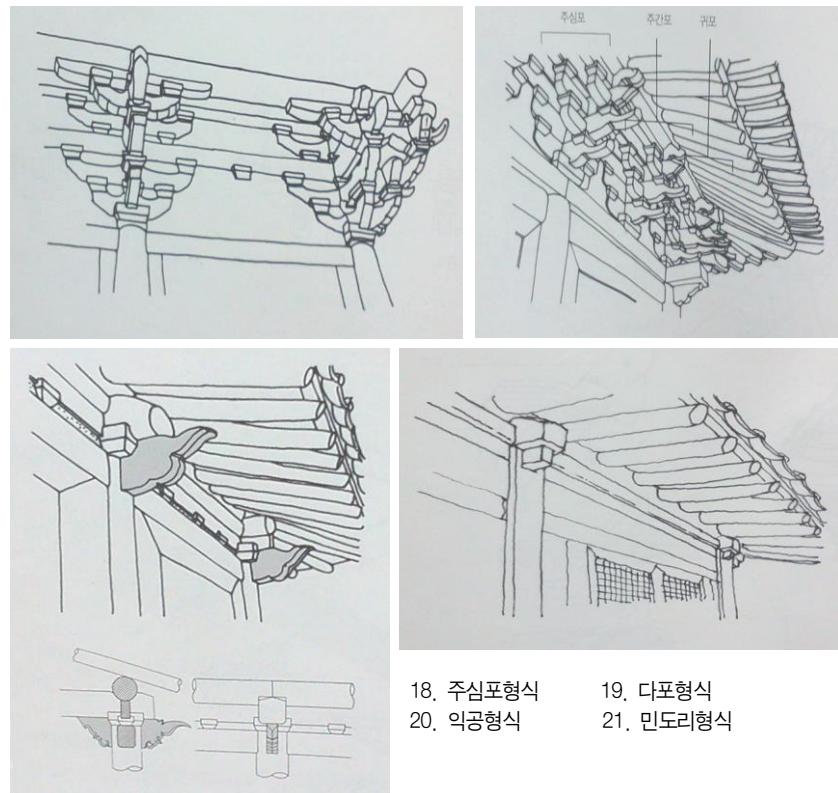
주로 조선시대 사용되던 공포형식으로 정전에 쓰였다. 다포의 발생은 규격화를 통한 재료의 절약과 고급기술력 수급의 어려움에 따른 표준화로 경제적인 공포형식의 창안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주심포형식에는 기둥 위에만 포를 두는 반면 다포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포를 둔다. 이를 간포라고 하며 공포를 타고 내려오는 하중을 보다 효율적으로 받기 위하여 창방위에 평방이라는 부재를 더 올린다. 주심포에 비하면 다포는 구조적으로 하중을 분산시켜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3) 익공

익공형식은 포작계와 비포작계에 관계없이 살미 부재가 새 날개처럼 만들어진 공포 형식을 말한다. 이때 익공의 개수와 모양에 따라 초익공, 이익공, 물익공으로 나눈다. 초익공이란 익공이 1개인 경우이고 이익공이란 익공이 2개인 경우이다. 물익공이란 익공개수와는 관계없이 익공의 끝 모양이 뾰족하지 않고 둥그렇게 만든 것을 말한다. 대개 출목이 있는 포작계 익공은 이익공형식이 많고, 비포작계의 익공형식은 초익공형식이 많다. 초익공형식은 기둥머리를 '+ '자로 따낸 곳에 창방과 익공이 ' + '자로 짜여지고 그 위에 주두를 올리고 주두 위에서 보와 도리가 올라가는 형식이다. 이익공의 경우에는 초익공 위에 다시 익공과 행공이 ' + '자로 짜여지고 그 위에 소주두를 놓은 다음 소주두 위에서 보와 도리를 결구하는 형식이다. 이때 행공이라는 부재는 다포형식의 첨차에 해당하는 부재로 익공과 십자로 짜여지는 부재 명칭이다.

4) 민도리

민도리 형식은 가장 간단한 구조로 창방이 없다. 또 장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다. 장혀가 있는 경우에는 기둥의 사갈 튼 곳에 장혀와 도리가 보와 십자로 짜여진다. 때로는 단장혀로 하고 보아지와 사괘로 맞춰지고 그 위에 주두를 올려놓은 다음 주두 위에서 보와 도리가 맞춰지는 경우도 있다. 가장 간단한 구조는 주두와 장혀 없이 보와 도리가 사괘맞춤 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도리는 굴도리보다는 창방모양의 방형 단면인 구형보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민도리 형식은 살림집이나 사찰과 궁궐의 부속채등 간단하고 단순한 건물에 주로 사용되었다.



6. 가구

가구란 집을 만드는 뼈대의 엎기를 말한다. 가구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부재는 기둥과 보, 도리 등이다. 이러한 부재가 어떤 형식으로 짜느냐하는 것이 가구구조이다. 이때 가구라 할 때는 정면 칸 수에 관계없이 측면의 단면구조를 말한다. 3량집, 5량집, 7량집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이것은 종단면상 도리가 몇 줄 걸려있느냐를 말한다. 맞배지붕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도리는 최소한 3줄이 걸려야 한다. 그러므로 최소단위는 3량집이다.

살림집에서는 가장 많은 것이 오량집이다. 그 중에서도 1고주 5량집이 보편적이어서 전면 반 칸은 퇴칸으로 구성한다. 사찰 대웅전과 같은 큰 건물은 7량집이나 9량집이 많다. 고려시대 금당 중에서 봉정사 극락전이 7량집이고, 수덕사 대웅전이 9량집이다. 량이 많을수록 보편적으로 규모가 큰집이지만 언제나 그렇지는 않다.

평사량은 매우 드문데 동자주가 가까이 붙어 쌍 도리가 걸린 것처럼 보이는 구조이다. 반오량은 도리가 4개이므로 지붕의 전면과 후면이 모양이 다른 것을 말한다. 한쪽은 단연과 장연이 걸린 구조이고 한쪽은 장연만 걸린 지붕 형태이다.

일고주 오량집은 고주를 중심으로 대들보와 퇴보가 있는 구조로 가장 일반

적인 한옥의 구조이다. 심고주 칠량은 정 중앙에 고주가 중보를 받고 있는 구조이다.

3평주 5량집은 고주가 아닌 평주를 건물의 중앙에 세우고 여기에서 보 둘을 연결하여 건너지른 구조를 말한다. 이때 두 보를 맞보(합량)이라고 부른다.

가. 보

보는 보통 건물의 앞뒤 기둥을 연결하는 수평구조부재를 말한다. 서끼래와 도리를 타고 내려온 지붕의 하중은 최종적으로 보를 통해 기둥에 전달된다. 수직 구조재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둥이라면 수평 구조재로 가장 중요한 것이 보가 된다. 보는 그 위치와 쓰임에 따라 부르는 명칭이 다양하며, 또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한 건물에도 여러 가지 보가 사용된다. 가장 간단한 3량집의 경우에는 앞뒤 기둥을 연결하는 보 하나면 된다. 보가 이렇게 하나 있을 때는 그냥 보라고만 지칭해도 된다.

1) 종보/중보/대들보

가장 위에 있는 보를 종보(宗樑)이라고 한다. 가운데 것을 중보라 하고 가장 밑에 있는 보가 대들보(大樑)이다.

2) 퇴보

1고주 5량집인 경우에는 대량과 같은 높이로 퇴칸에서 고주와 평주를 잇는 짧은 보가 걸리는데 이를 퇴보(退樑)이라고 한다.

3) 맞보

맞보(合樑)는 3평주 5량집에서 주칸이 커서 대들보 하나로 걸지 못할 때 가운데 기둥을 하나 더 세우고 양쪽에서 이어대는 보를 말한다. 서로 마주보고 있다고 하여 맞보라고 한다.

4) 충량

충량은 건물 측면에서만 나타나는데 중앙 칸에서만 생긴다. 보머리는 외진 주에 걸리고 한쪽 끝은 건물 내부의 대들보에 걸리는 보를 말한다. 대웅전과 같은 건물에서는 대들보 위에 걸터앉은 충량에 용머리 등을 새겨 장식하기도 한다. 민가 등에서는 대들보 등을 타지 않고 대들보 옆에 주먹장으로 맞춤 한다.

5) 우미량

우미량은 조선 초기의 주심포형식 건물에서 주로 나타난다. 우미량은 직선부재가 아니라 소꼬리처럼 생긴 곡선부재이다. 크기도 작으며 다른 보처럼 기둥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도리에서 밑에 있는 도리를 연결하는 부재이다. 수덕사 대웅전에서 양쪽으로 각각 3개씩 6개의 우미량을 볼 수 있다. 다포형식이나 익공형식 집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6) 귓보

귓보는 건물 모서리에서 45° 로 걸리는 보이다. 한국에서는 귓보의 사용이 많지 않지만 중국건물에서는 많이 나타난다. 건물의 규모는 크지만 부재가 가는 경우에 건물의 뒤틀림을 방지하기 위한 보조재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목탑에서는 체감을 위해서 위층으로 갈수록 기둥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위층 귓기둥이 아래층 귀접이 보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다. 귓보는 내진열의 우주와 외진열의 우주를 연결하지만 귀접이 보는 기둥이 아닌 모서리 창방과 창방을 45도로 연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창방/평방

창방은 주두 바로 밑에서 기둥을 가로로 연결시키는 수평부재인데 기둥과는 주먹장 맞춤으로 한다. 모서리부분에서는 창방과 창방이 수직으로 짜는데 이 때 주심 밖으로 창방이 약간 빠져 나오게 된다. 이를 창방뿔목이라고 한다.

평방은 다포형식의 건물에서 간포를 받기 위해 창방 위에 가로놓이는 부재이다. 평방은 춤보다 폭이 더 넓다. 평방도 마찬가지로 귀에서 수직으로 짜여 약간 주심에서 튀어나오는데 이를 평방뿔목이라고 한다.

다. 도리

도리는 단면의 모양에 따라 원형도리를 굴도리라고 부르고 방형도리를 납도리라고 부른다. 천원지방(天圓地方)의 사상에 따라 원을 남성, 양성으로 보았고 방형을 여성, 음성으로 보았다. 그래서 창덕궁의 연경당의 경우 남성이 사는 건물에는 굴도리를 사용했고, 여성이 사는 건물에는 납도리를 썼다.

라. 장여

장여는 도리 밑에서 도리와 같은 방향으로 놓여 도리를 받는 부재이다. 장혀의 폭이 일반적으로 건물의 기준 척이 되는 수장폭이 된다. 주심포 건물에서는 장여를 포가 있는 부분에서만 놓는데 이를 단장여라고 하고 이에 반해 도리와 같이 길게 이어진 것을 통장여라고 부른다.

마. 대공

종보 위에서 종도리를 받치고 있는 부재를 말한다. 기능은 같아도 모양은 실로 다양하다.

1) 동자대공

동자대공은 가장 간단한 형태의 대공으로 짧은 기둥 모양으로 생긴 대공을 말한다. 현존하는 고려시대 다포형식 건물 중 하나인 북한의 심원사 보광전에

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2) 판대공

판대공은 판재를 사다리 형태로 여러 겹 겹쳐서 만든 대공으로 장식이 없다. 조선시대 팔작지붕의 일반민가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3) 파련대공

판대공을 초각하여 화려하게 장식한 것이 파련대공이다. 대개의 경우 천장은 설치하지 않는 연등천장에서 대공이 노출되므로 장식적인 대공을 사용했다.

4) 포대공

포대공은 공포를 짜듯이 소로와 첨차를 이용해 대공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바. 화반

화반은 주로 익공집이나 드물게 주심포집에서 포와 포 사이의 포벽에 놓여 장혀중간을 받치고 있는 부재이다. 장혀가 중간에서 쳐지는 것을 방지해 주는 다포형식의 간포와 같은 역할이다. 화반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판재를 초각하여 연꽃모양으로 만든 것인데, 그 모양과 형태는 다른 어느 부재보다도 다양해서 일정한 명칭을 붙이기 어렵고 그 형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부른다.

1) 人자형 화반

‘人’ 자 모양의 화반을 말한다.

2) 동자주형 화반

짧은 기둥모양의 화반을 말한다.

3) 제형 화반

사다리꼴 형태의 화반을 말한다.

4) 일반형 화반

파련을 조각한 역사다리 형태의 화반을 말한다.

5) 복화반형 화반

봉정사 극락전에서 볼 수 있는 불꽃모양의 화반을 말한다.

7. 창호

창은 일조와 환기를 위하여 만든 개구부를 말한다. 한옥은 창과 문이 크기가 거의 비슷해 구분이 잘 안되지만 머름 위에 있는 것이 창이다. 살창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데 얇은 살대를 각종 모양으로 엮어 짜고 여기에 창호지를 발라 마감한다. 한식 창은 창호지를 안쪽에 바르지만 일식창호는 창호지

를 밖에 바른다. 일조와 관계가 있다. 문이나 창이나 문양은 대동소이하다.

가. 세살

세로 살은 꽉 채워 넣고 가로 살은 상하와 중간에만 몇 개 넣은 창과 문을 말한다.

나. 만살

세로 살뿐만 아니라 가로 살도 꽉 찬 문을 만살문이라 한다.

다. 세살청판

청판이 있는 세살문을 말한다.

라. 만살청판

청판이 있는 만살문을 말한다.

마. 판문

널문(판문)은 나무판재로 만든 문인데 솟을대문 등 양반집의 대문은 거의가 널문에 속한다. 일반민가에서도 부엌문은 널문으로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바. 우리판문

대청의 뒷문은 판문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올거미가 있고 여기에 판재를 끼워 만든 판문을 우리판문이라고 한다.

사. 아자살

'亞' 자 형태로 살을 짠 문을 말한다.

아. 원자살

'完'자 형태로 살을 짠 문을 말한다.

자. 불발기분합문

대청과 방사이의 출입문에 쓰이는데, 분합문 중간에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사각형이나 팔각형으로 작은 창을 내는 것을 말한다. 불발기창의 높이는 앉은 사람의 눈의 높이로 안정감을 준다.

차. 꽃살

꽃살문은 매우 화려한 문으로 사찰의 전각에서 많이 쓰였다.



22. 세살-김선조가옥

23. 세살청판-송재휘가옥



24. 판문-송재휘가옥 안채

25. 우리판문-윤증고택

26. 아자살-양동향단

27. 불벌기분합문-윤증고택안채

9. 지붕가구

가. 쳐마

1) 훌처마

훌처마는 서까래만 있고 부연이 없는 지붕을 말한다.

2) 겹처마

부연까지 갖추어진 지붕은 겹처마라고 한다.

나. 추녀/사래

추녀는 건물 모서리에 45° 방향으로 걸리는 방형 단면의 부재이다. 평고대를 걸고 지붕가구를 만들 때 가장 먼저 거는 것이 추녀이다. 추녀는 맞배지붕에는 생기지 않는다. 겹처마인 경우 쳐마도 이중으로 걸리게 되는데 추녀 위에 덧달아 내는 부재를 사래라고 한다.

다. 평고대

한옥지붕의 원만한 현수곡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까래를 걸기 전에 먼저 모서리에 추녀를 걸고 추녀를 연결하는 평고대를 건 다음 평고대의 곡선을 중심으로 서까래를 걸어서 지붕곡선을 만든다. 그러므로 지붕곡선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부재가 평고대라고 볼 수 있다

라. 개판

서까래 사이를 막는 판재를 말한다. 부연 위에 까는 판재는 부연개판이라고 하고 목기연 위에 까는 판재는 목기연개판이라고 부른다. 개판을 고정시킬 때에는 한쪽에만 못을 박는다. 양쪽에 못을 박으면 건조하여 트게 된다.

마. 연합

평고대 위에는 기와를 앉히기 위해 기왓골과 같이 오목오목하게 판 가로부재가 놓이는데 이를 연합이라고 한다. 연합만큼은 목수가 아닌 와공이 치목한다.

바. 박공

박공은 맞배지붕이나 팔작지붕의 합각부분에 ‘人’ 자 모양으로 걸린 판재이다. 도리의 말구에 부착하여 도리를 가려주고 목기연이 올라가는 바탕이 된다. 두 박공이 만나는 용마루 부분에는 박공을 긴결하는 철물을 박는데 이를 꺽쇠라고 한다. 고급집에서는 조각이 된 얇은 철판을 붙이는데 그 모양이 지네 같다고 하여 지네철이라고 한다. 또 박공판을 붙이기 위하여 도리에 못을

박는데 못대가리가 크고 장식적이다.

사. 풍판

풍판은 맞배지붕에서 측면에 대는 비바람 막이 판이다. 얇고 긴 판재를 세로로 붙여대는데 사이사이는 졸대로 연결한다. 풍판은 주로 조선시대 등장하는데 이전건물은 측면부분의 지붕이 밖으로 많이 빠져 나와 있어서 어느 정도 비바람이 뿌리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었는데 조선시대에는 목재의 부족으로 지붕을 많이 빼지 못해 건물측면을 비바람으로부터 막아주는 방편으로 풍판이 생겨나게 되었다.

아. 갈모산방

한옥의 지붕은 양쪽으로 갈수록 올라가 있다. 이를 위해 건물양쪽 도리위에는 삼각형 부재를 올려 서까래를 받치도록 하는데 이를 갈모산방이라고 한다.

자. 서까래

서까래는 지붕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부재이다. 서까래는 그 쓰임과 위치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된다.

차. 장연/단연

3량집인 경우에는 종도리에서 처마도리까지 하나의 연목으로 걸지만 오량집인 경우에는 종도리에서 연목이 이어진다. 이때 종도리에서 종도리까지는 짧은 서까래가 걸리는데 이를 단연(短椽)이라고 하고, 종도리에서 처마도리에 걸리는 서까래를 장연(長椽)이라고 부른다.

카. 평연

선자연 구간을 제외한 건물의 중앙부분에는 서까래가 평행하게 나란히 걸리는데 이를 평연이라고 한다.

타. 선자연

추녀 양쪽으로는 부챗살 모양으로 서까래를 말한다.

파. 마족연

선자연을 거는데 선자연의 뒤 뿌리가 하나의 꼭지점에 모이지 못하고 추녀에 엇비슷하게 붙는 경우로써, 이렇게 추녀에 붙는 서까래의 단면모양이 밀발굽처럼 긴 타원형으로 생겼다고 해서 마족연 또는 말굽서까래라고 부른다.

하. 부연

서까래 위에 서까래와 같은 방향으로 단면이 방형인 짧은 서까래를 한 층 더 거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부연이라고 한다.

거. 목기연

맞배나 팔작지붕의 합각부분에는 人자형으로 박공이 걸리고 그 위에는 부연 보다도 훨씬 짧은 방형의 서까래가 걸리는데 이를 목기연이라고 한다.

10. 지붕

가. 지붕의 종류

1) 맞배

맞배지붕은 건물의 앞뒤에서만 지붕면이 보이고 용마루와 내림마루로만 구성되었으며, 책을 엎어놓은 것과 같은 형태의 지붕이다. 주로 주심포집에서 많이 사용되었고 조선시대 사당 건물은 크기와 포의 종류에 관계없이 맞배집으로 하였다. 일반 살림집과 궁궐의 경우에는 정전이 아닌 행랑채와 회랑 등에서 사용되었다.

2) 우진각

우진각지붕은 네 면에 모두 지붕면이 만들어진 형태이다. 전후면에서 볼 때는 사다리꼴 모양이고 양측 면에서 볼 때는 삼각형의 지붕형태이다. 우진각지붕은 용마루와 추녀마루만 있고 내림마루가 없는 지붕 형태이다. 원초적인 지붕형태로 아주 오랜 원시움집에서부터 사용되었으며 초가집은 거의 대부분 우진각지붕이다. 일반 살림집의 경우 안채는 우진각집이 압도적으로 많다.

3) 팔작

팔작지붕은 우진각지붕 위에 맞배지붕을 올려놓은 것과 같은 형태의 지붕이다. 측면에도 지붕이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우진각지붕처럼 삼각형 끝점까지 기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박공부분이 만들어지는 지붕 형태이다. 전후면에서 보면 갓을 쓴 것과 같은 형태이고 측면에서는 사다리꼴 위에 맞배지붕의 측면 박공을 올려놓은 것과 같은 형태이다. 팔작지붕은 조선시대 다포집에서 많이 사용되었으며, 부속채 보다는 정전건물에 사용되었다. 현존하는 권위건물의 지붕형태 중에서 가장 많은 형태의 지붕이다. 위계질서 상으로는 가장 높다고 생각하여 크기와는 관계없이 중심건물을 팔작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 모임

모임지붕은 용마루 없이 하나의 꼭지점에서 지붕골이 만나는 지붕 형태이다. 모임지붕은 평면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방형 평면인 경우에는 사각뿔 형태인데 이를 세분하여 사모지붕이라 하고, 육각뿔형태는 육모지붕, 팔각뿔 형태는 팔모지붕이라고도 한다. 모임지붕은 이와 같이 용마루와 내림마루가 없고 추녀마루만으로 구성된 지붕을 말한다. 모임지붕은 비일상적인 정자건물과 탑 등에 주로 사용되었다.

5) 초가

초가지붕은 서민들의 살림집에서 흔하게 사용했던 지붕으로 새(草)라고 하는 추수 후의 벗대로 이엉을 엮었으며 1년에 한번 정도는 새로 이엉을 이으며 새(草)가 날리지 않도록 井자형으로 새끼줄로 잡아맨다.

6) 너와

너와지붕은 얇고 넓은 판재로 이은 지붕을 말한다. 강원도 산간의 까치구멍 집이 너와집인 경우가 많다. 가로 20cm, 세로 30cm 정도의 송판을 1치 정도의 두께로 판재를 만들어 이은 지붕인데 너와를 만들 때는 도끼로 빼개서 만드는 것이 원칙이다. 톱으로 켜면 섬유질이 나타나지 않고 골이 형성되지 않아 배수가 느려서 쉽게 썩는다.

나. 지붕의 구성

1) 용마루

지붕마루는 지붕이 서로 만나는 곳에 생기는데 팔작지붕의 경우 정면에서 보았을 때 가장 높은 곳에 가로로 길게 놓인 것이 용마루이다.

2) 내림/추녀마루

용마루 양쪽, 합각부분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내림마루라고 부르고, 추녀 위에 있는 것이 추녀마루이다. 우진각지붕은 내림마루가 없는 것이며, 모임지붕은 용마루와 내림마루가 없는 것이다.

3) 부고/착고

지붕마루는 대개 수기와와 암기와를 조합해서 만든다. 보통은 수기와를 2단 정도 옆으로 뉘어 쌓은 다음에 그 위에 암기와를 옆어서 몇 단 쌓고, 가장 꼭대기는 다시 수기와를 옆어 쌓아 지붕마루가 만들어진다. 이때 제일 밑에 뉘어 쌓는 수기와 첫째 단은 기왓골에 맞게 그렝이질하여 맞추는데 이를 착

고라고 한다. 그 위에 다시 한단 놓이는 수키와는 부고라고 한다.

11. 천장

가. 우물천장

우물천장은 우물정자(井) 모양으로 만든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한옥에서 가장 흔하게 보이는 천장이 우물천장이다. 우물마루처럼 장귀틀과 동귀틀을 바둑판 모양으로 짜고 그 가운데에 청판을 끼워 만든 천장이다. 반자청판은 귀틀에 돌려진 소란에 의해 받쳐져 있기 때문에 위로 밀면 들린다. 우물반자는 주로 다포집에서 사용된다.

나. 연등천장

연등천장은 특별히 천장을 가설하지 않고 서까래가 노출되어 보이는 천장을 말한다. 주로 고려시대 주심포집에서 사용되었다. 연등천장은 지붕가구가 모두 노출되기 때문에 부재들을 아름답게 마감한다. 살림집의 대청마루 상단의 천장은 주로 연등천장으로 하였다.

다. 지반자

일반서민들의 살림집에서는 방에서도 따로 천장을 가설하지 않고 노출된 서까래 위에 도배지를 직접 발라 사용했는데 이러한 천장을 소경반자라고 하였다. 그러나 보통의 방은 달대에 의지하여 반지틀을 짜고 여기에 천장지를 붙였다. 이를 지반자 또는 방반자라고 한다.

12. 마루

가. 우물마루

우물마루는 한옥에서만 나타나는 고유한 마루형식이다.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장귀틀을 건너지르고 장귀틀 사이에는 동귀틀을 일정한 간격으로 건너지른 다음 동귀틀 사이를 마루청판을 끼워 마감하는 마루형식이다. 사계절이 뚜렷하여 건조 수축이 심한 한국적인 기후에 적합한 마루유형이다. 나무가 건조되어 마루청판 사이가 벌어지면 마루를 다 뜯지 않아도 한 장 한 장 촘촘히 밀어 넣고 마지막장을 한 장 더 보강해 넣으면 되는 효율적인 마루 형식이다.

나. 장마루

장마루는 한 방향으로 걸린 귀틀 위에 폭이 좁고 긴 마루장을 촘촘히 이어 붙여깐 마루형식이다. 한국의 현존하는 유적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마루인데 고대건축에서는 많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강화도의 성공회성당 마루가 장마루이다. 그리고 최근에 지은 충북 진천의 보탑사 3층목탑에 장마루를 깔았다. 장마루는 우물마루보다 까는 것이 손쉬운 반면 수축이나 이완으로 인한 변형이 왔을 때는 마루 전체를 다시 고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긴 판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곧은 목재가 필요하다.



28. 우물마루-송재휘가옥

13. 난간

가. 계자난간

계자난간은 조선시대 가장 널리 쓰이던 난간으로 난간대를 계자다리라는 부재가 지지하고 있는 난간을 말한다. 계자다리는 측면에서 보면 구름모양으로 장식했는데 난간대가 약간 밖으로 튀어나오도록 되어있다. 그래서 긴박하지 않고 여유가 있는 난간이다. 난간대는 돌란대라고 부르며 돌란대와 계자다리 사이에는 연 잎 모양의 장식재를 끼는데 이를 하엽(연 잎이라는 뜻의 한자어)이라고 부른다. 돌란대 밑은 머름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청판에는 중괄호 두 개를 엎어놓은 것과 같은 모양의 바람구멍이 뚫린다. 이를 풍혈 또는 허혈이라고 부른다.

나. 아자교란/완자교란

평난간은 계자다리가 없는 난간으로 난간청판 대신에 창호에 사용되는 살대로 여러 가지 문양을 베푼 난간을 이른다. 살대의 문양에 따라 아자교란, 완자교란, 빗살교란 등으로 불린다. 난간대와 교란사이에는 역시 하엽에 의해 연결된다. 계단이나 통로 등으로 난간이 끊어지는 양쪽에는 난간대보다 단면도 크고 높이도 약간 높은 보조기둥을 세우는데 이를 법수라고 한다. 법수는 계단이 시작되는 양쪽에도 세운다. 계단난간을 여기에 고정시킨다. 즉 법수는 난간대를 고정시키는 기둥을 말한다.



4장. 전통주택의 가구방식

가구란 집을 만드는 뼈대의 얹기를 말한다. 가구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부재는 기둥과 보, 도리 등이다. 이러한 부재가 어떤 형식을 갖느냐하는 것이 가구법이다. 이 때 가구법은 정면 칸 수에 관계없이 측면의 단면구조를 말한다. 3량집, 5량집, 7량집, 9량집 등으로 분류하는데, 이것은 종단면상 도리가 몇 줄 걸려 있느냐하는 데에 따른 것이다. 경사지붕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도리는 최소한 3줄이 걸려야 한다. 그러므로 가구의 최소단위는 3량집인 것이다.

1. 3량

3량집은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인 가구법으로 도리가 세줄로 걸린 가구구조를 말한다. 앞뒤 기둥에 대들보를 걸고 대들보 중앙에 대공을 앞뒤 평주와 대공 위에 각각 도리를 걸어 서까래를 받치도록 한 구조이다. 3량집은 규모가 작은 건물이나 살림집 중에서도 문간채나 광채 등에 많이 이용되는 가구법이다.

2. 2평주 5량

5량집은 일반 한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식이다. 주심도리와 종도리 사이에 중도리가 하나 더 걸리는 구조이다. 같은 5량집이라도 내부에 기둥 없이 앞뒤 평주에 대들보를 걸어 구성한 5량집을 2평주 5량집이라고 한다. 이러한 구조는 대들보가 앞뒤 평주를 견너질려야 하기 때문에 보가 길어져서 잘 사용되지 않는다. 고려시대 강릉객사문과 홍성 고산사 대웅전, 서산 개심사 대웅전 등에서 볼 수 있다.

3. 1고주 5량

대부분 한옥은 전면에 퇴칸이 마련되기 때문에 내부에 고주를 세우기 마련이다. 이때는 전면 반 칸에는 퇴보가 걸리고 후면 1칸 반은 대들보가 걸린다. 그리고 대들보 위에는 후면평주에서 반 칸 되는 위치, 즉 전면 고주와 대칭되는 위치에 동자주라는 짧은 기둥을 세우고 고주와 동자주를 잇는 종보를 올리고 종보 중간에 대공을 세워 5량집을 구성한다. 같은 5량이지만 고주가 있는 5량이기 때문에 1고주 5량집이라고 한다. 1고주 5량집은 살림집의 안채 등 정침에 주로 이용된다. 그러나 봉정사 대웅전, 여주 신륵사 극락보전, 칠장사 대웅전 등과 같은 사찰의 대웅전에서도 많이 사용되었다.

4. 3평주 5량

앞뒤 평주 중간에 같은 높이의 평주를 하나 더 세워 중간의 평주 위에서 대들보를 연결한다. 이러한 보를 맞보라고 하며 대들보가 긴 것이 없을 경우에 사용되는 가구법이다. 내부에 고주 대신 평주를 세워 구성한 5량집이기 때문에 3평주 5량집이라고 말한다.

5. 1고주 7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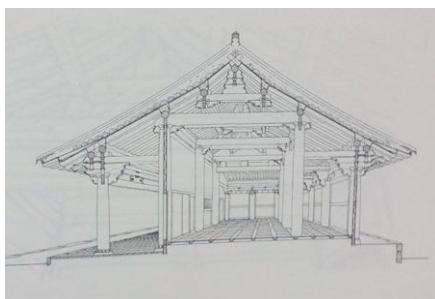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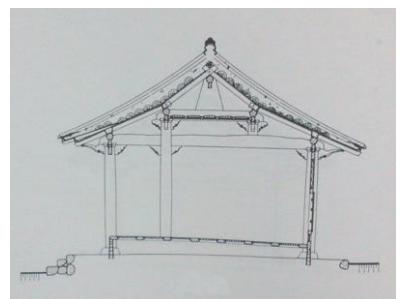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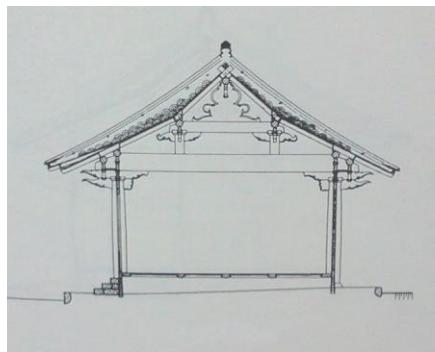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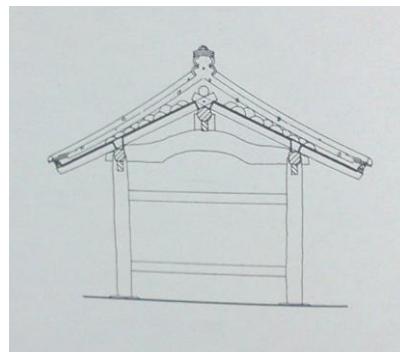
7량집 중에서 2고주 7량집 다음으로 많은 것이 1고주 7량집이다. 봉정사 극락전의 정칸가구와 지림사 대적광전, 금산사 대적광전이 여기에 속한다.

6. 십고주 7량

봉정사 극락전 측면가구처럼 정 가운데 십주가 서고 양쪽으로 고주와 평주가 서는 십고주7량집이 있는데 흔하지는 않다.

7. 2고주 7량

7량집 이상은 일반 살림집에는 거의 없고 사찰이나 궁궐 등의 큰 건물에서 주로 이용되었다. 7량 정도면 규모가 꽤 크기 때문에 앞뒤 평주를 하나의 대들보로 연결하는 2평주7량집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7량집에서는 앞뒤로 퇴칸이 있는 2고주 7량집이 대부분이다.



32. 3량구조
34. 1고주5량구조

33. 2평주5량구조
35. 2고주7량구조

■

제 3부
전통 주거개념의 현대화

1장. 현대적 활용을 위한 전통주거의 특성 분석

1절. 자연환경과의 조화

전통건축개념과 조경사상은 자연환경과의 조화에 있다.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만들고자 하였고, 주변 환경과 어울리게 건축하고자 하였다. 산이 많은 우리나라의 지리적 상황은 어떻게든 산과 마을 주거 공간이 질서를 갖길 바랬고, 그 결과 풍수지리의 적극적인 도입으로 자연과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거 자체가 자연과 일치 되어 하나가 될 수 있었다.

2절. 휴먼 스케일

한옥은 인체치수를 근본으로 디자인되었다. 따라서 한옥에 사용되는 척도는 모두 인체에서 나오며, 조선시대에 사용했던 자(尺)는 사람의 손마디를 한 치(寸)로 했을 때 그 열배되는 길이를 말한다. 1푼(分)은 치의 1/10이 된다. 방의 창 머름대는 좌식생활을 하는 방의 내부에서 겨드랑이 아래에 걸칠 수 있는 높이가 되며, 머름대의 높이는 문갑이나 실내가구 디자인의 기준이 되는 치수가 된다.

방과 대청의 기본적인 크기는 옛사람의 키인 5자의 높이에 여유 공간을 둠으로써 인체치수에 비례하여 계획되었다. 좌식생활을 기반으로 하는 방의 천장 높이는 7.5자의 높이로 앉은 사람의 눈높이인 2.5자에 서 있는 사람의 키인 5자를 더한 값이며, 입식생활을 기반으로 하는 대청마루의 천장 높이는 10자의 높이로 사람의 키 높이의 2배의 값으로 계획되었다.

방의 한 변의 크기는 15자이며, 크기가 커질 때는 18자, 21자, 24자, 27자 등으로 넓혀진다. 이것은 모두 3의 배수이고 3은 천지인의 조화수이며, 3과 5가 어우러져 한옥의 방 크기의 기본 단위가 된다. 이렇게 한옥은 사용자인 인체치수가 기본 모듈이 되어 공간의 크기를 결정하는 휴먼 스케일의 정신을 내포하고 있다.

3절 공간구성

1. 기능에 따른 채의 분리

조선시대의 상류주택은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독립된 건물의 단위인 채의

다양한 구성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것이 바로 안채, 사랑채, 행랑채, 사당채, 별당채 등이다. 이러한 채의 성격은 남녀유별, 장유유서, 유교사상, 조상숭배 등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다.

남녀유별의 사상은 남자들의 거주공간인 사랑채와 여자들의 거주공간인 안채로 분리하게 만들었고, 장유유서의 사상은 사랑채와 안채 안에서 각 방의 위계를 정하며, 상하계층인 유교사상은 주인이 거주하는 공간과 하인이 거주하는 행랑채로 분리하게 만들었다. 또한 조상숭배사상은 조상의 위폐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기 위한 사당채를 형성하게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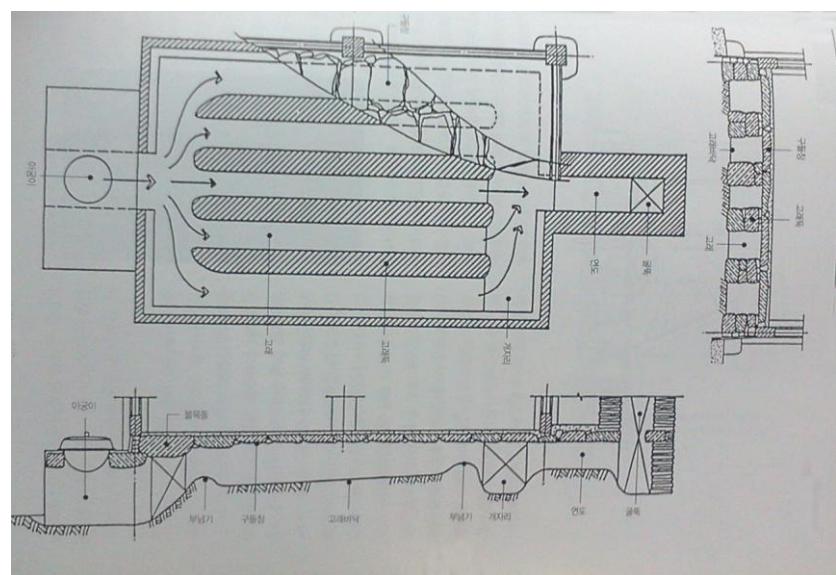
외부의 마당 공간 또한 이러한 채를 에워싸는 담장에 의해 형성되어 안마당, 사랑마당, 행랑마당, 사당마당, 뒷마당 등으로 구분하게 되었다.

2. 바닥 마감에 따른 공간기능의 변화

한옥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구들과 마루가 공존한다는 것이다. 이는 추운지방의 요구조건과 더운 지방의 요구조건이 결합되어 생겨난 것으로 사계절의 냉난방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특징이다.

구들은 주로 사적인 기능의 방의 바닥에 이용되며, 사방이 벽이나 창호로 에워싸여져 잠을 자거나 겨울철 생활하는 곳으로 이용된다. 방 내부의 구들 바닥에는 장판으로 마감하고 벽과 천정에는 한지로 마감하였다. 잠을 잘 때는 구들에 의해 따뜻하게 된 아랫목에 이불을 깔고 자고, 낮에는 방석 위에 앉아 생활하기 때문에 이불을 넣는 장이 항상 있으며¹⁵⁾, 융통적인 공간활용이 이루어진다.

마루는 사회적 기능으로 주로 사용되고 사방을 개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



36. 구들의구조

15) 대한주택공사, 공동주택 한옥디자인, 2009, 35쪽

으며, 주로 여름에 이용된다. 대청은 주택의 상징적 공간이면서 각 방을 연결하고 휴식을 취하거나 손님을 맞이하고, 상부에는 시렁을 만들어 가구나 소쿠리 등을 수납할 수 있어 현대적 의미로는 거실과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부엌이나 수장공간 등의 바닥에는 흙바닥이 주로 사용하여 다른 바닥과는 달리 신을 신은 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휴식은 마루나 방에서 신을 벗어 활용하였으나 가사나 노동은 신을 신은 채로 활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3. 가변적 공간

가변적 공간은 분합문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겨울은 폐쇄적으로 하여 따뜻하게 여름은 개방적으로 하여 시원하게 지낼 수 있다. 또한 대청과 방이 분합문의 개폐에 따라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되기도 하고 각각의 공간으로 나누어지기도 한다.

4. 전이공간

툇마루는 외부와 내부를 이어주는 전이공간으로써 각 실을 연결하여 주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

5. 수납공간

방의 아랫목 쪽에는 다퉁으로 총하는 다퉁문과 벽장이 설치된다. 벽장은 아랫목에 앉아 몸을 돌려 사용가능한 높이인 1.5척 정도의 높이에 설치되었고, 벽장문은 맹장지 여닫이문으로 하였다. 다퉁은 고창을 설치해 자연광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천장은 연등천장이다. 또 방 뒤쪽에는 퇴를 설치하여 수납공간으로 사용한다.

4절 환경 원론

1. 높은 기단과 깊은 처마

산의 경사지에 위치한 한옥은 자연스레 대지의 고저차가 생기고 이에 따라 건물이 대지와 맞닿는 기단에는 경사를 없애기 위해 자연스러운 단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사대부의 권위를 상징하기도 하는 높은 기단은 신분에 따른 공간활용의 제약을 주기에 적합하다. 이렇게 해서 발생된 높은 기단은 지표면의 습기 차단을 통해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한다.

깊은 처마는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직사광선을 차단시켜주며, 남중고도가 낮은 겨울철에는 방안 깊숙히 햇빛을 전달한다. 또한 겨울철에 상

승된 따뜻한 공기가 처마에 걸려 상당 시간 동안 바깥으로 배출되지 않고 머물게 한다.¹⁶⁾

2. 대류와 통풍

한옥의 온돌방에서는 구들에서의 열기와 숨을 쉬는 창호지로부터 들어오는 시원한 공기가 만나 자연스레 대류가 일어나게 된다. 조선 말기 까지 서민들은 이불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턱의 높이는 1자 보다 높게 올려서 사람이 누웠을 때 코 위를 상회하면서 대류가 일어나게 하여, 시원한 외부의 공기가 유입되지만 사람은 춥지 않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문턱의 높이가 쓸데없이 높아 출입이 불편하다는 문제점을 말하기도 한다.

한옥의 안마당에는 아무런 식물도 심지 않고, 뒤플에 조경을 많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안마당에서는 태양에 의한 복사열이 직접적으로 반사되어 더위지고 귀뜰에서는 산과 조경들로 인해 기온이 내려간다. 이와 같은 온도 차이로 말미암아 한옥의 내부에는 자연적인 대류현상이 발생하여 여름철엔 특히 시원한 바람이 분다. 특히 여름철엔 대청 뒤를 막고 있는 판문을 열어둘 수 있고, 마루의 판자도 자연적인 형태를 활용하고 연결도 간격이 발생하게 하여 마루 바닥의 시원한 바람이 일게 하였으며, 난간에도 풍혈을 두어 대류가 적극적으로 생기게 하여 바람이 보다 센 속도로 흐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처마를 너무 깊숙이 빼다보면 집안이 어두울 수 있는데, 집안을 밝게 하는 방편으로 마당에 잔디를 심지 않고 마사토를 깔아 마당에 반사된 태양빛을 실내에 끌여 들였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간접조명의 방식이 되며, 직사광이 방안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창호지를 통과하면서 부드러운 빛으로 순화된다. 이로 말미암아 빛의 조도 차에서 오는 시력의 감퇴를 막을 수 있다.

5절 가구방식과 재료, 문양

1. 가구방식

한옥의 가구구법은 기둥을 세우고 보를 걸어두어, 고로와 첨차, 도리와 서까래를 짜 맞춘 집이다. 이러한 기둥과 보의 축조구법에 의해 다양한 공간을 형성하도록 한다

2. 한옥의 재료

전통한옥 구조체의 부재는 주로 나무를 사용하였고, 벽체를 이루는 전통적

16) 대한주택공사, 공동주택 한옥디자인, 2009, 40쪽

인 재료는 기와, 돌, 흙 등으로 다양하다. 실내부분에는 한지를 덧대어 사용한다.

흙은 내수, 보온, 전도성, 축열성 등의 좋은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은 실내에서 습도가 높을 때는 습기를 흡수하고, 습도가 낮을 때는 습기를 방출하여 쾌적한 습도로 조절하여준다. 또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은 따뜻하게 하는 온도의 조절까지 해준다. 나무 또한 습도와 온도를 조절해 준다.

한지는 닥나무를 재료로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다. 한지는 채광을 가능하게 하며 바르는 한지의 겹에 따라서 채광조절도 가능하다. 또한 한지는 숨을 쉬기 때문에 환기를 가능하게 하여 실내공간을 항상 시원한 공기로 유지시켜주며, 습도의 조절에도 월등하다. 또한 등기구나 가구에도 사용되어 많은 쓰임새를 가지고 있다.

3. 자연적 질감과 형태의 자연미

한옥에 사용하는 재료들은 흙, 석재, 나무, 종이 등의 자연친화적인 재료들이므로 자연스럽게 재료 특유의 색상과 질감을 나타낸다. 가구에 사용되는 부재들의 형태도 자연의 모습 그대로를 잘 활용하고 있다. 즉 우미량이나 충량 등의 부재는 목재의 휘어진 모양에 따라 그 쓰임새가 결정되기도 한다.

4. 문양

기하학적, 식물적, 동물적, 문자 등의 다양한 소재들이 문양으로 이용되며, 문양마다 그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 필요공간에 적절히 부가하여 사용한다.

2장. 전통 주거개념의 현대화를 위한 디자인 가이드

현대주택을 디자인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들로는 위에서 논의한 전통주거의 특성들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성들을 반영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의 경우로 함축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전통한옥의 재현' 을 들 수 있다. 이는 현대에 전통적인 재료와 기법 들을 그대로 적용하여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한옥은 일단 전통적인 맛을 크게 느끼게 하는 유리한 점이 있고 그 의미 또한 상당히 있지만, 현대적인 재료나 형태미와는 동떨어져 있어 현대인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하고 주변 환경과 괴리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두 번째로 '현대적인 형태와 전통적인 형태의 조합' 을 들 수 있다. 이는 기본적인 매스의 형태와 재료는 현대적으로 하고 전통적인 요소들을 가져와

붙인 개념이다. 이 또한 의미는 있으나 소극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자칫 하면 치졸한 작품이 되는 경우도 많다.

세 번째로 ‘성숙된 전통개념의 현대화 “인데 이는 전통적인 개념이 현대적 감각에 완전히 녹아든 것으로써 가장 바람직한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이것 은 전통건축사상과 한옥에 대한 폭넓은 이해에서 출발하며 또한 현대적 감각 을 가진 디자이너에게서만 이룩될 수 있다.

그러나 현대화된 한옥에 대한 시도가 아직은 너무 부족하기에 위의 세 가지 방법들이 골고루 풍부하게 시도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으며, 그에 대한 평가는 추후에 진행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전통미를 반영한 현대주택들이 많이 시도될 때 우리의 고유한 건축미를 나타낼 수 있으며, 무국적화된 오늘의 도시건축의 현실 속에 우리 건축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세계적인 건축들과 힘을 겨룰 수 있으리라 믿는다.

■
제 4부

대표디자인

1장. 추천 대표디자인

1절 전통가옥 사례

1. 윤증 고택

가. 선정 사유

윤증고택은 18세기 이후 자리잡기 시작한 사대부가의 전형적인 공간구성을 하고 있는 좋은 사례이다.

나. 디자인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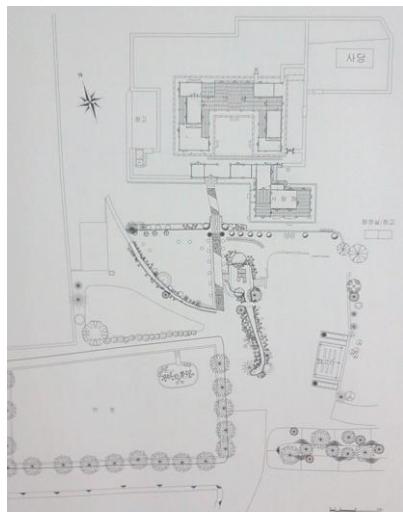
윤증 고택은 18세기 윤증에 의해 지어졌으며 그가 직접 생활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살림집은 전형적인 상류주택의 공간구성을 하고 있다. 이 살림집은 안채와 사랑채에 의한 두 개의 중심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건물 사이에 기다란 행랑채와 담장으로 차단되어 있다.

전면의 높은 기단 위에 사랑채가 돌출되어 있고, 그 후면으로 이어져 중문 행랑채가 一자형으로 가로로 놓여 있다. 중문을 들어서면 ㄷ자형의 안채가 있어서 중문행랑채와 함께 튼묘자형식으로 배치되어 있다. 집 앞에는 넓은 바깥 마당이 있고, 그 앞에 사각형의 인공연못을 파고 가운데에 원형의 섬을 둔 전형적인 연못을 배치하고 있다. 또한 안채 뒤쪽에는 완만한 경사지를 이용하여 뒤틀이 있고, 안채의 동북쪽 모서리에는 근래에 복원된 사당이 있는데 담장이 둘러져 있다.

안채의 평면은 몸체에 좌우날개를 달아 전체적으로 대칭인 ㄷ자형에 겹집 구성을 하고 있다. 가운데 6칸의 대청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안방과 윗방을 두었으며, 오른쪽에는 안사랑방과 건너방을 배치하였다.

사랑채는 높은 2단 기단 위에 정면 4칸, 측면 2칸의 평면구성으로 되어 있다. 2칸의 사랑방과 그 동쪽에 대청을 두었고, 서쪽에는 전면에 높은 누마루를 두고 후면으로는 아궁이 부을 설치하였다. 이 누마루에서 윤증이 설립하여 운영했던 서원이 있어서 이곳에서 서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랑방의 전퇴에는 마루를 깔고 사랑대청과 연결되어 있다.

윤증고택에는 상류주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문이 없고 대신 길과 단에 의해 그런 역할이 대체되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37. 윤증고택 평면도 38. 윤증고택 정면

39. 윤증고택 연못 40. 윤증고택 사랑채
기단 위 조경



2. 선교장

가. 선정 사유

선교장은 배치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주변 환경과 잘 어울어지도록 꾸민 조선후기 사대부의 살림집 중 수작으로 손꼽히고 있다. 또 옛 살림살이와 용구들을 소장하고 있어 옛사람들의 생활관습과 실내디자인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나. 디자인 평가

소재지: 강원도 강릉시 운정동 4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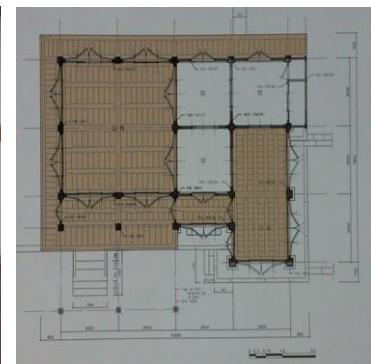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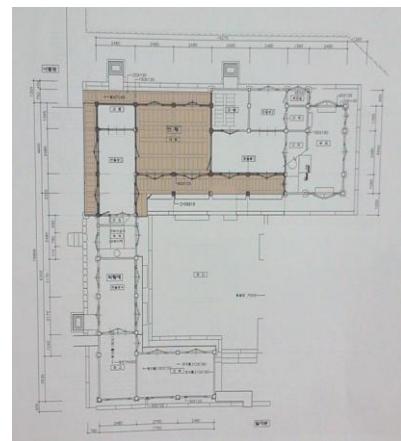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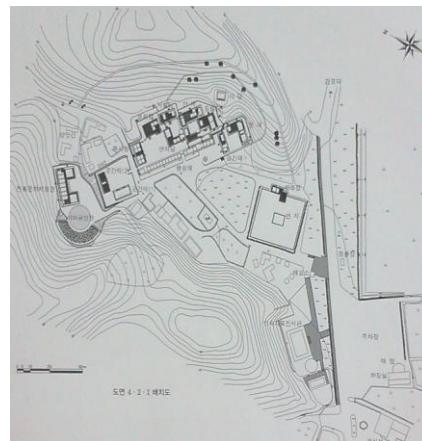
집터가 뱃머리를 연상한다고 하여 선교장이라 부른다. 이 가옥은 열화당, 서별당, 안채, 동별당, 활래정의 채로 이루어져 있다. 선교장은 동서로 긴 대지에 자리하고 있는데 서쪽에 사랑채인 열화당과 서별당을 배치하고 그 사이에 담을 막아 동편에 안채와 동별당을 앉혔다. 주건물의 앞쪽으로는 긴 줄행랑이 있어 바깥마당과 주택의 본채들을 구분하고 있다. 선교장의 주출입구는 서별당 앞쪽으로 나 있는 솟을대문이다. 안채로 출입하는 대문이 별도로 있기는 하나, 행랑의 처마선에 변화가 없어 멀리서 보면 구분이 되지 않는다. 행랑

바깥쪽 넓은 터에는 운치 좋은 정자가 연못가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 건물이
활래정이다.

안채는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로 안방과 건너방을 배치한 ㄷ자 형식으로 되어 있고 5량가구로 된 집이다.

안채의 서편에는 집안의 남자들이 사용하는 서별당과 열화당이 자리하고 있다. 주인의 서재인 서별당은 가운데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에 온돌방을 두고 서측 온돌방 측면으로는 책을 보관하는 서고를 만들어 통풍이 잘되는 누마루 형식으로 꾸며져 있다. 열화당은 사랑채로 정면 4칸 측면 2칸의 겹집구조로 되어 있다. 열화당에는 많은 손님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전면2칸 측면2칸의 큰 대청이 있고 사면에 세살청판분합과 널판문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면모를 과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열화당의 전면에는 동판을 너와처럼 이은 차양이 시설되어 있다. 열화당은 세별대 높은 기단 위에 다시 석주형 주초를 놓고 상부가구를 꾸몄다. 기단이 높고, 주초 또한 높아서 대청으로 오르는 계단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며, 퇴와 쪽마루 주변에는 난간이 둘러져 있다.

선교장 입구의 활래정은 온돌방과 마루로 만들어진 몸채와 네모난 연못 속에 높은 돌기둥을 세우고 연못 쪽으로 돌출시킨 마루공간으로 되어 있다.



41. 선교장 배치도
43. 선교장 안체 전경

42. 선교장 안체 평면도
44. 선교장 열화당 평면도



45. 선교장 열화당 전경

3. 연경당

가. 선정 사유

연경당은 순조 28년에 왕세자였던 익종이 민간의 사대부가를 참조로 궁궐 안에 지은 상류주택의 형식으로 된 집이다. 따라서 연경당의 건물군 전체는 한국 주택사 연구에 있어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으며, 조선시대 사대부의 주택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궁궐안의 살림집이다. 또한 한옥의 고식을 잘 간직한 주택으로 전통한옥의 특성을 잘 간직하고 있는 좋은 사례이다.

나. 디자인 평가

연경당은 넓은 대지 위에 좌우로 내당과 외당으로 구획한데서 오는 공간의 변화는 보는 이로 하여금 색다른 공간의 정취를 느끼게 한다. 우선 연경당의 동면을 제외한 모든 면에는 수로가 에워싸고 있고 남쪽이 정면 입구에 석교를 설치하여 수로를 건너게 되어 있다. 이는 상류주택과 사찰, 궁궐 배치에서 흔히 던 방식으로 잡신들은 물을 건너지 못하는 속성을 이용해 사람만 그 공간을 건너고 잡신은 건너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석교 옆에는 괴석을 심어놓은 석함이 있으며, 전방에 바깥행랑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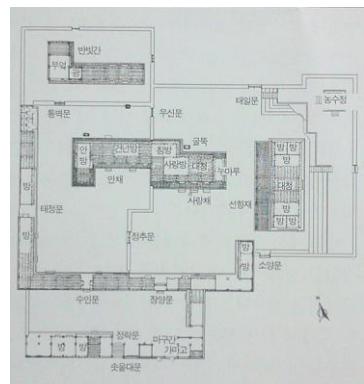
바깥행랑채 가운데의 장락문을 들어서면 좌우가 긴 행랑마당이 있고 두 개의 중문이 있는 중문간 행랑채가 맞은편에 나타난다. 이 중에서 우측에 있는 솟을대문이 사랑채로 통하는 장양문이다. 이 문을 지나 사랑마당에 들어서면 좌측에는 안마당과 사랑마당을 구획하는 담장이 꺽여 있으며 담장 가운데에 정추문이 있다. 사랑채의 오른편에는 선향재가 위치해 있으며 뒤편의 경사진

언덕 위에 놓수정이 배치되어 있다. 또한 안채의 후면에는 부엌과 수장고의 역할을 하는 반빗간이 있다. 연경당의 특이한 점은 도리의 형상이 안채는 남도리로 사랑채는 굴도리로 되어 있고, 안채와 사랑채 모두 네모기둥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조선시대의 남녀유별과 가옥규제에 대한 법령을 충실히 지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랑채 앞에는 초현이나 말을 타고 내릴 때 발을 딛도록 만들어 놓은 노둣돌(하마석)이 있다.

사랑채는 정면 6칸, 측면 2칸으로 사랑방과 대청, 누마루로 구성되어 있다. 안방의 동쪽 전면과 뒷면으로는 사랑채까지 쪽마루가 연결되어 있어 서로 통행이 가능하나 판문이 있어 개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평면구성에서 특이한 점은 실내공간구성에서 안방에서 사랑방까지 장지문을 개방해 놓으면 일직선성으로 통할 수 있도록 된 것이다.

사랑채 동쪽에는 서재의 역할을 하는 정면 7칸 측면 2칸의 선향재가 있고 전면에는 독특한 차양이 설치되어 있다.

선향재 뒤쪽 언덕의 화계 위 제일 높은 곳에는 후원 별정인 놓수정이 있다. 놓수정은 정면과 측면 모두 1칸으로 되어 있고 단층 사모기와 지붕을 한 이익공 집이며 처마는 겹처마이다. 지붕의 정상에는 절병통을 두었다. 놓수정은 날아갈 듯한 지붕곡선과 아름다운 외관의 비례, 섬세한 문살, 뒷마루 난간 등으로 정자 건물 중에서도 디자인이 뛰어난 건물이다. 놓수정의 전면에는 작은 마당을 두고 주위에 돌난간을 설치하여 아주 특별한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46. 연경당 배치도
48. 연경당 사랑채

47. 연경당 전경
49. 연경당 안채



50. 연경당 선향제 차양



51. 연경당 농수정과 화계

2절 전통미를 가미한 현대주거 사례

1. 경주 라궁호텔

가. 선정 사유

구가도시건축의 조정구 소장이 설계한 경주 라궁호텔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옥호텔로써, 한옥의 맛을 간직한 현대적인 호텔이다. 또한 디자인은 전통적인 기법을 따르면서 내부의 삶의 양식과 설비, 재료 등은 현대적인 기법이 적용되었다. 라궁은 전통한옥을 기반으로 하여 현재의 생활에 맞게 전통을 재해석하여 적용하고자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나. 디자인 평가

라궁호텔은 배산임수의 원칙을 따르고자 하여 산을 뒤로하고 튼모자 형식의 전통적인 상류주택의 배치형식을 가지고 있다.

라궁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들르게 되는 관리동(로비, 리셉션 데스크, 레스토랑)은 호텔의 공적인 인상을 결정하는 공간인 만큼 그에 어울리는 개방적이고 화려한 공간을 지니고 있다. 2층에 달하는 높이를 그대로 터놓아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고 높은 서까래 천장과 이를 받치고 있는 육중한 대들보와 기둥은 궁이라는 이름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위엄과 기품을 더해준다. 천장 아래로 설치미술 작품처럼 걸려 있는 거대한 한지 조명등은 공예작가 차현림 씨의 작품으로 마치 물결치는 파도처럼 곡선을 그리는 조명등과 대형 노리개와 함께 매달린 원기둥형 조명등이 전통의 미감을 현대적으로 변주해 색다른 멋을 보여준다.

중정의 바닥은 얇은 수면으로 연출했는데, 그 가운데에 잘생긴 단풍나무 한 그루가 열린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고 서 있다. 모자형 구조인 관리동 한옥은 어느 공간에서나 창을 통해 이 중정을 감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로써 나무는 하나의 오브제가 되어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그림을 연출한다. 1층은 중정을 중심으로 사방을 돌아 리셉션 데스크로 연결되는 모자형 구조로 되어 있고, 2층은 그 모자형의 절반인 ㄴ자 부분으로만 구성되며 한식 레스토랑으로 활용되고 있다.

길게 이어지는 회랑은 궁궐 전각 주위에 있는 회랑과 같은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으며, 회랑을 따라 각 객실의 문이 이어져 있다.

라궁 내 객실은 총 16개로 길게 이어지는 지붕을 공유한 채 독립된 각 객실이 회랑을 따라 이어진다. 객실은 도시형 한옥 구조가 적용되어, 총 네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쪽 호수로 돌출된 누마루형, ㄷ자형을 기본으로 하는 마당형, 그리고 스위트룸의 두 가지 유형이다.

긴 회랑을 따라 위치한 객실의 정문은 나무문으로 되어 있고, 문 안에는 신발을 벗도록 되어 있는 현관과 연결되어 대청마루, 안방, 안마당, 미니바, 누마루, 노천온천 등이 객실별로 약간의 형태변화를 갖고 있다. 마루와 안방에는 금장식이 더해진 전통가구가 놓여져 있고, 입식을 위한 소파와 침대가 안방에 배치하여 한식의 전통을 현대화한 디자인에 충실하고 있다. 대청마루와 안방, 안마당, 누마루로 통하는 문을 모두 열어 놓으면 집안은 시원스럽게 하나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공기가 통할 수 있다. 한옥 마당에 마련된 노천 온천은 모자형 한옥으로 둘러싸여 있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유지되면서도, 하늘이 열려 있어 시원하고도 이색적인 목욕 공간을 제공한다.

이렇게 라궁호텔은 전통적인 주거의 형식을 현대적인 기법으로 재해석하고자 한 노력으로 듯보이나, 그 건축물은 여전히 과거의 건축형식에 집중하고 있어, 보다 과감한 방법으로 전통건축물의 형태를 해체하여 현대적인 기법에 의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형태감의 표현을 기대해 본다.



52. 라궁호텔 내부공간구성



53. 라궁호텔 객실 대청마루



54. 라궁호텔 객실 안방(좌)
55. 라궁호텔 객실 내부 노천온천(우)



2. 수출당

가. 선정 사유

현대주택은 기능적으로 편리하지만 상대적으로 정서적인 디자인 컨셉의 부족으로 사용자에게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하나, 이 건축가는 이를 탈피하고자 비록 기능적으로는 부족하더라도 우리의 전통적인 건축 사상과 삶이 상징적으로 표현된 현대적인 도시 주택을 설계하였다.

건축가 승효상의 '빈자의 미학'에서 밝힌 것처럼 이 주택은 소박함과 초심을 지키는 삶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더군다나 건축주인 고미술을 연구하는 유홍준교수(전 문화재청장)의 이미지를 반영하여 전통적인 언어를 현대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한 것을 볼 수 있다. 주택의 전체적인 형태감은 현대적인 재료와 수직 수평의 단순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많은 전통적인 요소들로 재구성되고 있다.

이 작품은 '현대적인 형태와 전통적인 형태의 조합'에 가까운 디자인의 좋은 사례라 할 수 있겠다.

나. 디자인 평가

1) 건축개요

건축주 : 유홍준

건축가 : 승효상(이로재)

위치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2-14

2) 디자인 개념 : 현대적인 주택 설계에 전통적인 주거 양식의 상징적 표현

3) 공간 구성 및 배치의 특징

현대적인 감각 속에 내재된 전통적 디자인 요소들의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상징적 표현을 하고 있다.

전통적인 상류주택의 공간구성원리인 채와 마당(안마당, 사랑마당, 뒷뜰마당)에 의한 분리된 공간구성을 하여, 안마당을 중심으로 한 L자 구성으로 되어 있다. 전통적인 마당의 접근방식을 고려하여 내부로 들어가는 공간 진입과 실내에서 각각의 실로 이동하는 방식들은 연속된 순차접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건축주의 요구조건을 고려한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을 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도시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외부를 수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면서 내부의 공간이 침해되지 않는 전통적인 개념을 반영하였다.

– 현관진입공간 : 주택의 대문에서 현관에 이르는 공간은 진입하면서 점점 작은 공간으로 줄어드는 것은 투시도기법을 이용하여 더욱 깊이감을 주어 보다 비록 짧은 길이지만 더 긴 공간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 현관 부분의 독립적인 지붕: 입, 단면도에 나타나는 것처럼 대문에서 현관에 이어지는 지붕은 캐노피로 처리되어 전통주택의 지붕에서 드러난 곡선을 상징하고 있다.

– 대문: 대문은 투명한 만자살 무늬로 처리하여 내부공간을 들여볼 수 있게 처리되어 있으며, 내부엔 전통적인 사고석 기와담장을 두어 현대적인 매스 속에 감춰진 전통적인 요소를 엿볼 수 있다. 또한 전통적인 담장을 완전히 가리지 않아 주택 내부를 엿볼 수 있게 함으로 기대감을 갖게 만들며 시선을 유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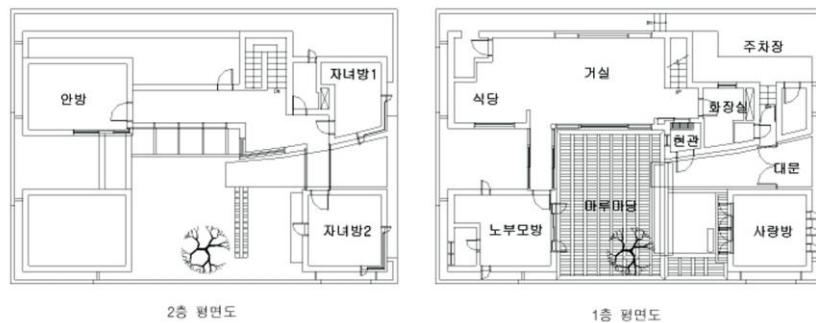
– 공간배치: 현관을 들어가서 모든 공간으로 통하는 L자 공간 구성

– 거실: 거실 부분과 마당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처리하고 통창을 사이에 두어 공간을 분리하면서도 내, 외부공간을 상호 연결하여 외부공간을 내부로 끌여 들인다.

– 마당: 전통주택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마당에 의한 공간분할이다. 집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마당은 경치를 집안으로 끌어들이고 외부를 내부로 수용하며 사람과 사람과의 연계에 도움이 된다. 집의 중심에 있는 안마당은 목재로 된 마루바닥으로 이루어지며 그 밖의 작은 마당이 집안에 자리를 잡아있어 상호 연결이 된다. 마당은 전통한옥의 대청과 같은 우물마루의 패턴이 적용되어 있다. 전통한옥에는 마당에 나무를 심지 않으므로 마당엔 한쪽 벽으로 치우쳐서 나무를 설치하여 시각적인 단조로움을 피하고 계적감각을 느낄 수 있게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절제와 긴장의 미학을 추구하였다.

– 다용도실: 집 안쪽 거실에서 안방으로 가는 통로 뒤에는 다용도실을 겸한 뒤텁이 있다. 방들을 바로 붙이지 않고 조금 떼어 놓으니 그사이의 자투리들이 오히려 쓸모 있는 공간이 되었다.

- 사랑채: 불시에 자주 찾아오는 손님을 접대할 때 건축주가 안주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의도하여 공간을 별도로 고려하였고, 뒷마루나 방안에 앉아 사색에 잠길 수 있다.
 - 창호: 집안의 창호들은 전통적인 창호지를 활용하여 전통적인 문양으로 칸살이를 하였다.
- 사랑채를 별도로 두고 안방과 다른 방들을 전통적인 별도의 채 구성으로 하였다.
- 재료: 전통적인 기법인 기와지붕에 목구조가 아니더라도 현대건축의 주재료인 콘크리트와 유리로도 훌륭하게 전통적인 요소를 표현하였다.
 - 내벽: 벽에는 한지를 여러 겹 발라 시원하면서도 정갈 있는 분위기 형성하여 우리의 전통적 정서를 되살리는 것이 한옥의 외관에만 머무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 풍경: 치마 밑에 풍경을 두어 전통적인 멋을 더하고 있으며, 바람의 흐름을 청각적,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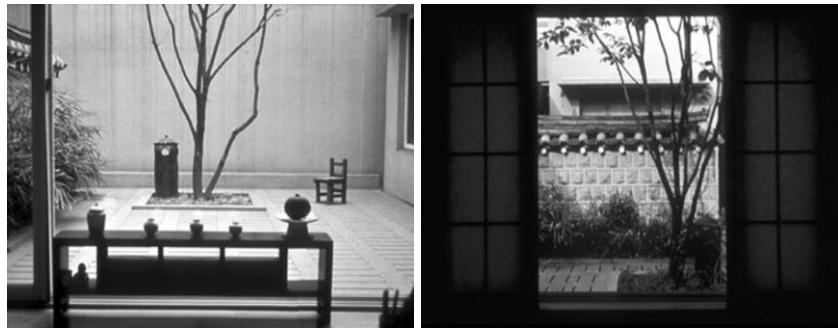
56. 수출당 평면도



57. 수출당 입면도



58. 수출당 대문



59. 수출당 거실에서 본 마당

60. 수출당 안방에서 본 마당

3. 공동주택 한옥디자인 개발안

가. 선정 사유

이 프로젝트는 ‘한스타일’을 현대생활에 적합하게 제안하여 육성하는 정부의 종합계획에 따라서, 주택공사가 한국의 대표적인 주택으로 정착한 초고층 공동주택에서도 전통한옥의 디자인 요소들을 적용시켜 확산하려는 취지로 ‘공동주택에 적용 가능한 한옥 디자인 개발’ 용역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참여한 건축설계사무소는 (주)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와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로써 계획안을 발표한 내용이다.

이 계획안의 목적은 초고층 공동주택에 적용 가능한 전통건축 요소(기능, 구조(구법, 재료), 디자인 등)를 현대적인 공동주택에 활용하여 한옥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기반 구축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 계획안은 현대적인 재료와 기법을 사용하면서도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현대적인 필요공간에 전통적인 개념을 다양하게 매우 잘 소화한 ‘성숙된 전통개념의 현대화 “를 이룬 작품의 좋은 사례이다.

나. 디자인 평가

이 계획안에서는 공동주택의 단지계획, 건축, 실내디자인 등에 충체적으로 한옥의 디자인 요소를 활용하며 계획한 개발안을 제시하였다.

1) 단지계획

기본적인 단지계획은 기존의 자연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연조건에 적응해가면서,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곳을 보완하는 개념의 비보풍수로 부족한 부분을 식재나 동산, 혹은 수공원 등으로 보완하고, 시법단지 조건에 맞추어 전통마을의 계획이론을 도입하여 적용하였다. 마당을 공유하며 3개의 주동이 둑인 배치구성과 각 주동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길과 마당을 중심으로 계획하였

다. 안길의 중심부에는 마을의 상징수를 위치시켜 시각적 인지요소로 활용하였으며, 단지 내 대부분의 길은 유기적으로 굴절시켜 시각적으로 뚫린 곳 없이 안정된 공간감을 자아내고 있다. 경사지에는 단차를 이용하여 화계를 조성하여 전통적인 경관 요소 및 휴게공간으로 활용하였다. 단차의 발생에 따라 화계 자리에 앉은 주동은 하부 필로티 공간을 이용하여 누하진입 공간을 계획하였다. 도로의 바닥 포장은 전통적인 포장패턴으로 구성하였고, 규칙적인 리듬감을 표현하였으며, 각 구역별로 단지의 테마를 두어 상징적으로 전통문양이 새겨진 악센트 포장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였다.

2) 주동 외관

한옥에서 보이는 조형3분법(기단, 벽, 지붕)의 체계를 초고층 아파트에 적용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3분법의 체계는 천, 지, 인이라고 하는 우주질서가 건축물의 형태 속에 표현하고자 하였다. 한옥이 가지고 있는 비례(후면 스케일)와 격식에 따른 조형언어로 접근하였으며, 여러 세대가 군집된 공동주택의 상층부 디자인에 한옥이 군집해 있는 전통마을의 원경을 도입하였다.

주동 외관은 전통 디자인 모티브인 구법, 문양, 색체를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로 구분하여 선택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저층부는 가구식과 벽식, 골목식 등으로 개발하였다. 가구식은 전통가구방식에서 보이는 결구요소를 응용하였고, 벽식은 화방벽이나 담장의 입면에서 보여지는 디자인적 요소를 수평3등분하여 석재와 전돌, 와편 등의 자재를 조합하여 사용하였다. 골목식은 한식 담장과 대문으로 구성된 골목길로 조성하였다.

중층부는 전통문양 패턴(길상문)을 현대화하여 입면의 켜로 도입하였다.

상층부는 옥탑부의 구성요소를 시각적으로 분절하고 주동간위로 높낮이의 변화를 주며, 지붕을 중첩시켜 전통마을의 원경을 이미지화 하였다. 상층부는 경사형과 수평형의 두 개안으로 계획되었다. 경사형은 소박한 살림집의 중첩된 지붕의 형상을 이미지화 하였고, 수평형은 수평판 구조물에 처마곡과 가구식 구법의 의장 요소를 차용하여 이미지화 하였다.

3) 실내공간 디자인

실내공간은 마당에 중심을 두고, 생활공간(각실), 가사공간(대청, 부엌)으로 구분하여 전통적인 개념으로 개발하였다. 방은 한지를 발라 전통적인 느낌의 디자인으로, 거실은 목질을 살려 격식에 맞는 공간으로 디자인 개발하였고, 조명기구 또한 전통적인 개념으로 디자인 개발하였다.

① 평면구성

실내 평면의 기본구성은 방, 마루, 마당의 3개 영역을 기본으로 하여, 안마당을 기준으로 바깥채와 안채로 나누었다.

사랑방은 안마당을 기준으로 안채와 분리되어 바깥주인 고유의 영역을 주도록 계획되었고, 재택근무자를 위한 알파룸 개념도 도입하였다.

누마루는 문간마당에서 내외담으로 가려진 외부 접객의 장소이며, 별체구성 없이 공간을 열어두어 현관 진입시 깊은 공간감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누마루를 중심으로 안마당, 뒷마당, 문간마당이 3면으로 접해있어 비움을 통한 정서적 공간으로 시선을 열어두었다. 바닥은 방보다 올려져 있어 공간의 격을 높이고, 문간마당과 복도 쪽으로는 간을 두어 개방감을 주었으며, 뒷마당으로 향한 문은 한식창호로 숫대살 불발기를 설치하였다. 부엌과 연결된 면은 머름을 두고 아자살 쌍창을 설치하여 문간마당에서 바라다 보이는 시선을 처리하였다.

복도는 각 실로 들어갈 수 있는 매개공간으로써 퇴칸이 갖는 의장요소를 차용하였다.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뒷보를 걸어 긴 공간을 분절시켜 지루함을 없앴다. 복도와 대청등 마루영역과 접해 있는 면의 상부에는 고창을 두어 채관을 끌어 들이며, 가로로 수평지게 설치하였다.

안마당은 자연의 유입을 위한 비움의 공간으로 안채와 바깥채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며, 대청쪽으로 들어열개창을 두어 공간을 확장하기도 하고 닫아버릴 수 있는 매개장소로 하였다.

주방은 누마루(접객실)와 대청(가족실)에 연접해 위치하게 하여 주부의 가사동선을 줄이고 있다.

현관에는 전돌로 치장하여 둑근 화강석을 포인트로한 기와지붕의 담벼락을 두어 외부공간의 이미지를 부각시켰고 누마루와 연계된 시선공간으로 처리하였다.

② 실내디자인의 특성

- 마루와 방

집의 중심에 가장 넓게 자리한 마루는 가족이 모이는 중심공간이자 사회공간으로 전통한옥의 우물마루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은 한지로 감싸 정갈함은 준다.

- 자연적 재료와 색상

자연 친화적 소재인 흙, 돌, 나무, 기와, 종이 등을 사용하여 재료에서 나오는 색상들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

- 수납기능

현대 생활에 맞게 각 실 공간에 불박이의 벽장을 두어 생활용품을 수납하고 공간의 융통성과 정갈함을 주었다.

— 창호

한지 창호를 사용하여 빛을 조절하고 문이지만 동시에 벽과 같은 역할을 하게 하였다. 인접한 실의 성격에 따라 문의 개폐방법을 달리하고 다양한 패턴과 문양으로 입면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주었다.

- 가구

각 실의 가구는 전통가구의 구조를 모티브로 디자인하였다.

— 천장

마당과 부엌 마루 영역은 천장 가구재인 보나 서까래가 노출되고 방은 반자틀 위에 한지로 깨끗이 감싸 등기구를 설치하였다. 각 마당은 외부공간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 처마 아래에 서까래를 두었다. 누마루와 대청에는 경사진 천장면 중앙에 우물반자를 설치하였다.



- 61. 단지 배치도
- 63. 주동 외관 전경
- 64. 주동 저층부 외관

62. 단위 평면도

65. 주동 상층부 외관



66. 실내 투상도
67. 누마루 투시도



68. 안마당 투시도

참고문헌

- 대한주택공사, 공동주택 한옥디자인, 2009
- 대한건축사협회편, 민가건축2, 보성각, 2005
- 황용운 편저, 삶과 문화가 담긴 주거건축, 예일미디어, 2009
- 박언곤, 한국건축사강론, 문운당, 1986
- 김홍식, 경기도 한옥조사 보고서, 경기도, 1978
- 김홍식, 민속대관, 주생활편, 고대민족문화원, 1980
- 김태현, 조선후기 모자형주택의 구조와 부재비례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대학원, 1983
- 신영훈, 한국의 살림집, 열화당, 1983
- 김왕직, 그림으로 보는 한국건축용어, 도서출판 발언, 2003

이미지목록

no.	이미지제목	이미지출처	소장기관
1	안채-윤증고택	목조건축부재별조립체험(필자 촬영)	명지전문대학,한국 콘텐츠진흥원
2	안채-성위제가옥	목조건축부재별조립체험(필자 촬영)	명지전문대학,한국 콘텐츠진흥원
3	안채-김선조가옥	목조건축부재별조립체험(필자 촬영)	명지전문대학,한국 콘텐츠진흥원
4	사랑채-윤증고택	목조건축부재별조립체험(필자 촬영)	명지전문대학,한국 콘텐츠진흥원
5	사랑채-선교장	목조건축부재별조립체험(필자 촬영)	명지전문대학,한국 콘텐츠진흥원
6	사랑채-성위제가옥	목조건축부재별조립체험(필자 촬영)	명지전문대학,한국 콘텐츠진흥원
7	행랑채-양동향단	목조건축부재별조립체험(필자 촬영)	명지전문대학,한국 콘텐츠진흥원
8	사당채-윤증고택	목조건축부재별조립체험(필자 촬영)	명지전문대학,한국 콘텐츠진흥원
9	사당채-선교장	목조건축부재별조립체험(필자 촬영)	명지전문대학,한국 콘텐츠진흥원
10	사당채-성위제가옥	목조건축부재별조립체험(필자 촬영)	명지전문대학,한국 콘텐츠진흥원
11	민가평면유형	한국건축사강론	박언곤
12	ㅁ자집	필자 제작	
13	뜰집	필자 제작	
14	종류별 지붕형태	필자 제작	
15	자연석 기단-성위제 가옥	목조건축부재별조립체험(필자 촬영)	명지전문대학,한국 콘텐츠진흥원
16	사다리형 초석 -윤증고택 안채	목조건축부재별조립체험(필자 촬영)	명지전문대학,한국 콘텐츠진흥원
17	자연석 초석-성위제 가옥	목조건축부재별조립체험(필자 촬영)	명지전문대학,한국 콘텐츠진흥원
18	주심포형식	그림으로 보는 한국건축용어 스캔	김왕직
19	다포형식	그림으로 보는 한국건축용어 스캔	김왕직
20	익공형식	그림으로 보는 한국건축용어 스캔	김왕직
21	민도리형식	그림으로 보는 한국건축용어 스캔	김왕직
22	세살-김선조가옥	목조건축부재별조립체험(필자 촬영)	명지전문대학,한국 콘텐츠진흥원
23	세살청판-송재휘가옥	목조건축부재별조립체험(필자 촬영)	명지전문대학,한국 콘텐츠진흥원
24	판문-송재휘가옥 안채	목조건축부재별조립체험(필자 촬영)	명지전문대학,한국 콘텐츠진흥원
25	우리판문-윤증고택	목조건축부재별조립체험(필자 촬영)	명지전문대학,한국 콘텐츠진흥원
26	아자살-양동향단	목조건축부재별조립체험(필자 촬영)	명지전문대학,한국 콘텐츠진흥원
27	불발기분합문-윤증고택안채	목조건축부재별조립체험(필자 촬영)	명지전문대학,한국 콘텐츠진흥원
28	우물마루-송재휘가옥	목조건축부재별조립체험(필자 촬영)	명지전문대학,한국 콘텐츠진흥원
29	계자난간-운조루	목조건축부재별조립체험(필자 촬영)	명지전문대학,한국 콘텐츠진흥원
30	아자교란-해영가옥	목조건축부재별조립체험(필자 촬영)	명지전문대학,한국 콘텐츠진흥원
31	완자교란	목조건축부재별조립체험(필자 촬영)	명지전문대학,한국 콘텐츠진흥원
32	3량구조	그림으로 보는 한국건축용어 스캔	김왕직
33	2평주5량구조	그림으로 보는 한국건축용어 스캔	김왕직
34	1고주5량구조	그림으로 보는 한국건축용어 스캔	김왕직
35	2고주7량구조	그림으로 보는 한국건축용어 스캔	김왕직

36	구들의구조	그림으로 보는 한국건축용어 스캔	김왕직
37	윤증고택 평면도	민가건축1 스캔	대한건축사협회
38	윤증고택 정면	필자 촬영	
39	윤증고택 연못	필자 촬영	
40	윤증고택 사랑채 기단 위 조경	필자 촬영	
41	선교장 배치도	민가건축1 스캔	대한건축사협회
42	선교장 안채 평면도	민가건축1 스캔	대한건축사협회
43	선교장 안채 전경	민가건축1 스캔	대한건축사협회
44	선교장 열화당 평면도	민가건축1 스캔	대한건축사협회
45	선교장 열화당 전경	민가건축1 스캔	대한건축사협회
46	연경당 배치도	한국의 건축문화재 스캔	홍대형
47	연경당 전경	한국의 건축문화재 CD	홍대형
48	연경당 사랑채	한국의 건축문화재 CD	홍대형
49	연경당 안채	한국의 건축문화재 CD	홍대형
50	연경당 선향제 차양	한국의 건축문화재 CD	홍대형
51	연경당 농수정과 화계	한국의 건축문화재 CD	홍대형
52	라궁호텔 내부공간구성	김왕직 촬영	김왕직
53	라궁호텔 객실 대청마루	김왕직 촬영	김왕직
54	라궁호텔 객실 안방	김왕직 촬영	김왕직
55	라궁호텔 객실 노천온천	김왕직 촬영	김왕직
56	수출당 평면도	필자 제작	
57	수출당 입면도	필자 제작	
58	수출당 대문	승효상작품집 스캔	승효상
59	수출당 거실에서 본 마당	승효상작품집 스캔	승효상
60	수출당 안방에서 본 마당	승효상작품집 스캔	승효상
61	단지 배치도	공동주택한옥디자인 스캔	대한주택공사
62	단위 평면도	공동주택한옥디자인 스캔	대한주택공사
63	주동 외관 전경	공동주택한옥디자인 스캔	대한주택공사
64	주동 저층부 외관	공동주택한옥디자인 스캔	대한주택공사
65	주동 상층부 외관	공동주택한옥디자인 스캔	대한주택공사
66	실내 투상도	공동주택한옥디자인 스캔	대한주택공사
67	누미루 투시도	공동주택한옥디자인 스캔	대한주택공사
68	안마당 투시도	공동주택한옥디자인 스캔	대한주택공사